

2018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초판 1쇄 발행 2018년 9월 6일

펴낸이 사공 일

총 팔 송경진

지 원 우형주

디자인 김정진

인 쇄 한진기확인쇄

펴낸곳 세계경제연구원

전 화 02-551-3334~8

팩 스 02-551-3339

등 록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ISBN 979-11-6177-007-9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2018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Eisuke Sakakibara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sten Sach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 India, Japan and China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Eisuke Sakakibara)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
Eisuke Sakakibara

1990년대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에서 차관을 역임한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박사는 엔저 정책을 추진하며 세계 외환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쳐 ‘미스터 엔(Mr. Yen)’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현재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외환시장, 신흥국 경제 등의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¹

에이스케 사카키바라

전 일본 대장성 차관

현 일본 아오야마가쿠인 대학교 교수

아시아 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거 10여 년간의 아시아의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는 19세기 중반까지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명 경제사학자인 앵거스 매디슨(Angus Maddison) 박사에 따르면 1820년까지 중국이 세계 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고 인도는 16%를 차지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 GDP의 절반가량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GDP의 1.8%에 불과했습니다. 19세기부터 18세기, 17세기, 심지어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합니다. 1500년에는 중국과 인도 경제를 합치면 그 비중이 세계 경제의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는 서방의 식민화가 시작된 19세기 중반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1820년에는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1842년에는 홍콩과 구룡반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1857년에 인

¹ 본 글은 2018년 5월 15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 초청 포럼에서 일본 대장성 차관을 지낸 에이스케 사카키바라(Eisuke Sakakibara) 교수가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강연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본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의 무굴 제국이 멸망하였고 인도는 1877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당시 아시아에서 독립을 유지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물론 태국도 명목상의 독립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씩 독립했습니다. 1947년에 필리핀이 독립을 선언했고 같은 해 인도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49년에는 베트남과 미얀마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1953년에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독립했습니다. 이를 일컬어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의 재부상”(Asia's re-emergence)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구가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1956년에서 1973년 사이에 일본은 매년 9.1%씩 성장했습니다. ‘일본의 고성장기’라고 합니다. 1974-1990년의 시기는 안정적 성장기입니다. 이 시기의 연평균 성장률은 4.2%였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홍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1980-1990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7.96%에 달했습니다. 싱가포르는 6.26%, 대만은 7.55%, 그리고 홍콩은 5.54%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경 중국과 인도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매우 높은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2008년에 이르는 30년간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9.8%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싱가포르가 7.0%, 베트남이 6.6%, 미얀마가 6.4%, 말

레이시아가 6.3%, 한국이 6.3%, 대만이 6.3%, 그리고 라오스가 6.1%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시기의 미국 성장률은 2.9%에 불과했고 일본은 2.6%였습니다. 1979-2008년까지 30년 동안 아시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 “리오리엔트(Re-orient)”라고 하며, 이때부터 아시아가 세계 경제 무대에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고성장기에서 안정적 성장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약 6.5%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성장률이 6.6%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의 성장률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인도의 성장률은 약 7.36%입니다. 2014년경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이 역전돼 인도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아세안(ASEAN)² 국가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얀마는 6.9% 성장할 전망입니다. 캄보디아는 6.9%, 라오스는 6.8%, 필리핀은 6.7%, 베트남은 6.6% 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시아권 내에서 고성장 지역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시작되어 아세안 국가, 그리고 인도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²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1967년 8월 8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도가 경제 성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DP)이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인도의 명목 GDP는 중국의 5분의 1 그리고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잘 관리만 한다면 향후 수년간 7-8%씩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도의 늘어나는 인구도 장점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4,000만 명인 반면, 인도는 12억 4,000만 명입니다. 2050년에 중국 인구는 13억 6,000만 명으로 지금과 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 인구는 지금보다 25%가 늘어난 16억 6,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인도는 인구가 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에서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의 54%가 25세 미만입니다. 앞으로 20-30년 동안 인도의 경제활동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인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에 따르면, 인도는 2015에서 2050년 사이에 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 경제대국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동기간 미국은 2.4%, 일본은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이지리아(5.4%), 베트남(5.3%) 그리고 방글라데시(5.1%)만이 인도의 성장률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인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취임하면서 인도인민당(Bharatya Janata Party, BJP)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산업화가 가장 앞선 구자라트주의 14년 동안이나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구자라트주에서 보여준 눈부신 성과를 발판 삼아 2014년 5월에 인도인민당(BJP)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국정을 상당히 수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 및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 문제나 식민화로 인해 한국 및 중국과는 다소 부정적인 과거사가 있어서 때로 외교적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인도의 독립을 도와준 셈입니다. 수바스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와 같은 국민의회당(Congress Party)의 좌파들이 일본으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1944년 일본이 찬드라 보스 및 라쉬 베하리 보스(Rash Behari Bose)에게 힘을 보태 영국과의 싸움을 도왔지만 작전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50년 중국의 GDP는 61조 7,9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도와 미국이 각각 42조 1,000억 달러 및 41조 3,000억 달러로 2위와 3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일본이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2050년에는 7대 경제 대국 중 4개가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는 아시아 국가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중심지는 일본과 한국, 대만, 홍콩에서 중국을 거쳐 인도까지 동에서 서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인도로 진출하는 일본 제조업체가 많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토요타(Toyota)나 혼다(Honda)와 같은 일본 자동차 기업은 인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스즈키(Suzuki)가 인도에서는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입니다. 스즈키는 인도의 국민차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부응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동의 하에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마루티 스즈키의 인도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스즈키는 일본보다 인도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 중심지가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더욱 서쪽으로 옮겨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를 거쳐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이들 지역과 나라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세 국가가 서로 협력한다면 상당히 큰 상호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한·중·일 삼국이 이들 지역과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개발을 지원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런 기관 중 하나입니다. ADB 총재는 줄곧 일본인이 맡았습니다. 일본

은 ADB에서 미국과 동일한 16%에 근접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운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라는 다른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회원국은 57개국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가입했지만 일본과 미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건으로는 일본도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도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AIIB의 진리쥬(Jin Liqun) 총재는 ADB의 부총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는 ADB와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습니다. ADB의 타케히코 나카오(Takehiko Nakao) 총재와는 일본 대장성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나카오 총재 역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 보완적입니다. ADB가 신경 써야 할 영역이 많기 때문에 ADB와 AIIB가 힘을 합친다면 더 많은 아시아 국가를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보완적, 호혜적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선진경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들 국가의 성장률은 하락했지만 경제 약화의 징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들 경제의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4-5만 달러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생활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이만큼 경제가 성숙하고 생활수준이 높으면 성장률의 하락이 자연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장률이 약 1% 정도입니다. 인플레이션도 1% 정도까지 하

락했습니다. 낮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의 선진국의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예외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약 2%입니다. 미국은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구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요소를 보입니다. 미국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국가입니다.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9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999년 미국 작가 안드레 건더 프랭크(Andre Gunder Frank)가 『리오리엔트(Reorient)』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그 제목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 경제가 방향을 바꾸면서 21세기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서는 인도가 아마도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도는 중동과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인도가 인도의 서쪽에 위치한 이들 국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자세히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에게 인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저는 언제나 일본의 동료들에게 인도는 일본과 정반대에 서있는 국가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본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언어는 ‘동질성’(homogeneity)입니다. 언어가 같고, 사람들도 상당히 비슷하고, 역사상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의 침략을 받은 적이 없는

일본은 매우 동질적인 나라입니다.

인도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건 바로 ‘다양성’(diversity)입니다. 인도는 인종, 언어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인도는 본래 드라비다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아리아인이 인도로 내려왔습니다. 인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많은 종족이 인도를 침략했습니다. 인도는 종교도 다양합니다. 힌두교도가 80%이지만, 약 15%의 무슬림, 2%의 기독교인 그리고 2%의 시크교도가 공존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내수 성장에 한계가 있는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 등의 고성장 국가에 손을 내밀어 이들이 누리는 고성장의 과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많은 일본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0-30년 동안 인도의 차량 구매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인도를 적극적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아시아는 역동성을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판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최근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통독 이후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아시아 지역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일본의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평화롭게 통합된다면 아시아 지역의 평화로운 공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환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10-20년 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통일이 되는 것은 무리일지라도 이런 분단 상태는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 10-20년이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A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질의 응답

Q 아시아의 발전은 중국의 움직임, 특히 ‘일대일로’ 정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 개발 노력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까지 포함한 여러 국가와 지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 질문자의 의견과 다르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 주요국이고 10년 이내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더라도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과 그 와중에 벌인 침략 행위로 인해 중국과 부정적인 과거사가 존재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존재감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미 및 미일 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시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하는 중국의 지나친 야망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거시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아시아가 장기적인 지배 세력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보는데 특히 그 시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riceWaterhouseCooper)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 모델에 기초한 방정식입니다. 이 모델에는 수학 외의 요소가 일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서양의 경제 발전과는 매우 다릅니다. 서양은 경제 개발 이후 문화적, 과학적 발전과 그 외의 것들이 따라왔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매우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성장은 이를 따라 잡지 못합니다. 사회적 성장이 뒤처지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십니까? 거시적 모델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때로는 거시 모델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특히 인도와 관련해서 ‘다양성’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관리만 잘하면 국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우 동질적인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도 정부가 다양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판매세를 신설하고 점차 국가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주(州)별로 격차가 상당히 큼니다. 인도합중국 같은 셈입니다. 각 주마다 상당히 차이가 크고 언어도 매우 다릅니다. 인도는 통합이 어려운 국가이지만,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전국을 아우르는 세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국가 통합을 잘 해내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

이러한 통합 노력은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인도에도 상당히 유익할 것입니다.

Q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한 바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설파하면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축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안보 동맹입니까, 아니면 안보 동맹에 경제적 실체를 더한 것입니까? 저는 한국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향후 AIIB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IIB의 초기의 운영 행태로 보건데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심지어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AIIB를 운영하는 듯합니다. 중국의 AIIB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공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가입한다면 AIIB가 국제적 공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미 AIIB에 가입했습니다. 일본은 언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제 의견이 일본에서 주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AIIB의 발전에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미국과 함께 일본도 AIIB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DB가 AIIB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타케히코 나카오 ADB 총재가 말한 바

있듯이, ADB는 아시아의 개발을 위해 AIIB와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미국이 AIIB에 가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AIIB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중국의 지배력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예상하고 있고,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프로젝트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는 이미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동남아시아, 인도, 한국 그리고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도와 일본은 지난 100년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 총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국가이고, 인도 총리도 일본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중국의 큰 영향력을 줄이려면 인도와의 우호적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일본인에 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시아 역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 내에서 어떤 형태의 동맹을 형성해 중국

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인도가 젊은 인구가 많은 매우 ‘젊은 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는 벌써 오래전부터 잠재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아직도 그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그 이유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인도는 개발 측면에서 중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인도는 매년 7-8% 성장해 왔고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인도가 부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인도의 중산층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인도에서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중산층이 큰 규모로 형성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인구의 50-60%가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인도는 수익성 좋고 생산적인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지나치게 낙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인도 상황을 보면 무리한 생각은 아닙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국

가를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면서 국정을 잘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1인당 GDP는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잘 관리만 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큼니다. 현재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중국은 1960년대에 이도로부터 원래 자국의 영토를 되찾겠다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를 침략했습니다. 인도인들은 중국 군대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침략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간 과거사의 한 사건으로 치부합니까?

A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인도 정부에게 그 문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의 외교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인도 정부는 이전과는 외교 노선을 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그다지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민들 사이에 어떤 복수의 감정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 등에서 짐작하기로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우호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인도와 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날 걱정은 없습니다.

Q 2003년에 중국이 한창 떠오르고 인도는 아직 부상하기 전인 시점에 정치경제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이 쓴 『빅맥

이나 김치냐(Kimchi Matters)』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지역의 역학 관계를 설명하는 데 ‘김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외부에서 역학을 강요하는 대신 지역의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도 및 중국과 관련하여 지난 15년간 저는 이 책의 저자들이 주장한 바를 고민해 왔습니다. 흔히들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사실상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인도인은 지역 정부, 주 정부를 투표해서 선출할 수 있고 시위할 자유가 있으며 모든 문제가 숨김없이 공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도인은 더욱 긍정적이고, 더욱 개방적이며, 더욱 혁신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중국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개인에게 통제력이 있는 듯하지만, 의견을 표출할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저자들은 체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나 사회의 건전성 측면에서 인도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듯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의 엘리트가 정말 우수하다는 것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인도인들이 많은데, 그중

일부는 인도로 귀국해 요직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라구람 라잔 (Raghuram Rajan) 교수는 중앙은행 총재 자리에 올랐고 현재는 시카고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이들은 인도의 미래를 매우 희망적으로 봅니다. 유능한 인도인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돌아오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도는 더욱 유능해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Q 독일은 미국의 친절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AIIB 가입을 매우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AIIB에 대한 영향력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라도 가입을 권하겠습니다.

AIIB와 ADB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식과 아시아 전반에 대한 이해에 기초했을 때 양 다자간 금융기관이 어떤 국가에 지역에 집중해야 할까요? 집중해야 할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물리적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지만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는 아직 개발 중인 신흥국으로 물리적 인프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에너지와 환경 문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ADB와 AIIB는 아시아 지역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할 국가는 인도와 인도의 서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ADB나 AIIB와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상당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

하고 잠재력도 큼니다.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ADB와 AIIB는 결국 서쪽으로 초점을 옮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은 AIIB 가입에 대한 결단을 매우 빠르게 내렸고, 일본도 그렇게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미국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AIIB에 가입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AIIB 내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최대한 빨리 가입해야 합니다.

Q 인도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인도의 관료주의는 악명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분야는 주무 부처가 6개나 되는데 저마다 다른 내용을 주장합니다. 일본이 인도에서 새로운 산업 회랑을 건설해 뭄바이와 뉴델리를 잇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있어 일본의 해외개발원조(ODA)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까?

인도 회사와 지역 정부는 직접 기업에 투자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은 어떻게 인도 지역 정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 회사들이 사업 자금 조달에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른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찾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은 특정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A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자께서 더욱 전문적으로 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기업은 인도의 특정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 기업과 부품 기업이 매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방갈로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였고, 혼다와 다른 자동차 생산 기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많은 일본 기업들이 인도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인도에 대한 투자가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한동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많은 일본인이 인도가 일본 투자의 목적지라고 말합니다.

Q 현재 남북한 관계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층은 통일의 경제적으로 타당성과 효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독일 경제가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일이 유리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 독일 통일은 전반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동독 지역에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통일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처음에는 체제와 운영 방식 등이 달라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된 나라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isuke Sakakibara

Dr. Eisuke Sakakibara is currently professor of Aoyama Gakuin University. He served as Japan’s Vice Minister of Finance for International Affairs from 1997 to 1999. He was given the nickname “Mr Yen” for his outstanding ability to influence foreign exchange markets. He has also worked as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Institute for Policy Science at Saitama University and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Economics Department at Harvard University.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¹

Eisuke Sakakibara

Former Vice Minis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Ministry of Finance, Japan
Professor, Aoyama Gakuin University

Before talking about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Asian economy and its future, let me first review the developments in this area during the past decade or so.

Asia had been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until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s late as 1820, according to a well-known economic historian by Angus Maddison, China had 29 percent of the world gross domestic product (GDP), while India had 16 percent of the world GDP. In the early 19th century, China and India had almost half of the world GDP. At that time, the United States had only 1.8 percent of the world GDP. If you go back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18th, 17th, and even the 16th centuries, the global share of China increased. It is estimated that in 1500 the share of China and India combined was as large as 70 percent.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Mr. Eisuke Sakakibara, former Vice Minis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Ministry of Finance of Japan,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May 15, 2018.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Decline of Asia started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s the colonization by the West started to take place. There was an opium war in 1820. In 1842 Hong Kong and the Kowloon peninsula were colonized by the United Kingdom. In 1857 the Mogul Empire in India perished and India became a colony of the United Kingdom in 1877. As a matter of fact, Japan was the only country in Asia which maintained independence during that time. Of course, Thailand did maintain nominal independence. But it was actually under the control of the United Kingdom.

But after World War II Asian countries became independent one by one. In 1947 the Philippines declared independence. That same year India declared independence. And in 1949 Vietnam and Myanmar declared independence. In 1949 the Communist party took the regime in China. In 1953 Laos and Cambodia became independent. So this is called the “Asia’s re-emergence” in the world economy. And Asia became the high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It was headed by Japan. Between 1956 and 1973 Japan grew at the annual rate of 9.1 percent which was called the high growth period of Japan. The period of 1974 to 1990 was called the stable growth period. The annual growth rate during the period was about 4.2 percent on average. Japan was followed by Korea, Singapore, Taiwan, and Hong Kong. Between 1980 and 1990,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for Korea was as high as 7.96 percent; Singapore 6.26 percent;

Taiwan 7.55 percent; and Hong Kong 5.54 percent.

From around 1990 both China and India moved from the planne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and then started to grow at a really high rate. Between 1979 and 2008 during those 30 years the annual rate of China was as high as 9.8 percent. It was followed by Singapore, 7.0 percent, Vietnam, 6.6 percent, Myanmar 6.4 percent, Malaysia 6.3 percent, Korea 6.3 percent, Taiwan 6.3 percent, and Laos 6.1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the US growth rate was only 2.9 percent and the Japanese growth rate was 2.6 percent. During these 30 years between 1979 and 2008 Asia was the high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This was called the period of “Re-orient.” It was Asia’s re-emergence in the world economic scene.

However, in recent years China has been moving from a high growth period to a stable growth period. China’s growth rate is now around 6.5 percent. It was estimat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at in 2018 the Chinese growth rate will come down to 6.6 percent.

In the meantime, India’s growth rate has increased. In 2018 India’s growth rate is estimated to be 7.36 percent. Around 2014 the growth rates of China and India reversed. India’s growth rate surpassed that of China in 2014.

The ASEAN² countries have been growing at a very high speed as well. This year Myanmar is forecast to grow 6.9 percent, Cambodia 6.9 percent, Laos 6.8 percent, the Philippines 6.7 percent, and Vietnam 6.6 percent.

High growth in the Asian region has moved from east to west, originally from Japan and Korea, to ASEAN countries, and now to India.

India has been rising in terms of its economic growth. It has further potential to grow because its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still very low. Its nominal GDP is only one-fifths of that of China and one-eighths of that of the United States. So if it is managed well, India has a lot of potential to grow at 7-8 percent for some years to come.

The growing Indian population is a merit. The Chinese population is gradually declining and aging. Currently, the size of population of China is 1.34 billion whereas that of India is 1.24 billion. By 2050 China's population would remain almost the same, standing at 1.36 billion. But the Indian population is estimated to grow to 1.66 billion, which is an increase of 25 percent.

Another good thing about the Indian population is its

²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is a reg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comprising te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promot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facilitates economic, political, security, military, educational,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amongst its members and other Asian states.

youthfulness. India has a large number of young people in the population. 54 percent of its population is below 25 years of age. During the next two or three decades the working age population would increase quite rapidly in India. That will really benefit India's growth rate.

According to PriceWaterhouseCoopers, India is estimated to grow at 4.9 percent on average between 2015 and 2050. Among the big economies in the world, it is the highest growth rate. The United States is estimated to grow 2.4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and Japan is to grow 1.4 percent. Only Nigeria, Vietnam and Bangladesh are estimated to exceed India in growth rates, with Nigeria 5.4 percent, Vietnam 5.3 percent, and Bangladesh 5.1 percent.

India right now is in good hand.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has started the BJP (Bharatya Janata Party) government. As you know, Narendra Modi was chief minister of the state of Gujarat, the most industrially advanced state in India, for 14 years. With his successful performance in the state of Gujarat, he became the head of BJP in May 2014. He has been running the country fairly skillfully since then.

India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Korea and Japan. Particularly India's relationship with Japan is very favorable. Japan has some negative legacy with regards to Korea and China because of the war relations or colonization before World War II. So we have some hiccups at times in diplomatic relations.

Japan helped India become independent in a way. Some of the Congress party leftists like Subhas Chandra Bose came to Japan and conducted his independence movement. Japan did join Chandra Bose and Rash Behari Bose in fighting against the United Kingdom in power in 1944, although the operation was not successful.

In 2050, China's GDP is estimated to be \$61.79 trillion followed by India of \$42.1 trillion and then the United States of \$41.3 trillion. These three countries will be followed by Indonesia, Brazil, Mexico and Japan. In 2050 four out of top seven largest economies are Asian countries. You can say that the late 20th century and the early 21st century would be the century of the Asian countries. And the growth center has moved from the West to the East, from Japan to Korea, Taiwan, Hong Kong and to China and now to India.

Lots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Japan are now entering India. So are many Korean companies. Particularly Japanese car producers such as Toyota and Honda have established their operations quite aggressively in India. One major car producer in India is Suzuki which is not a major car producer in Japan. Suzuki responded a call from India to produce a national car for India. So Suzuki found a joint firm called Maruti Suzuki with the consent of the Indian government. Maruti Suzuki now takes up 60 percent of the share of the Indian domestic car market. Suzuki sells a lot more cars in India than in Japan.

The global growth center is moving to India and it may eventually move farther to the west to the Middle East, Saudi Arabia, Iran, and Iraq and then to East African countries, particularly Nigeria.

Korea, China and Japan are in a sense competing in these regions and countries. But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could be quite mutually beneficial as well. There are various organizations that help the three countries to operate in these regions and countries. Of course,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is one such organization which helps development of Asia. ADB is sort of dominated by Japan. The ADB president has always been Japanese. Japan's share in ADB is close to 16 percent which is the same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So the US and Japan dominate the management of ADB.

Because of that, China has established another organization which is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It now has a membership of 57 countries with most European countries participating, althoug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have not yet joined the AIIB. But my personal opinion is Japan should join. I think Japan will eventually join the AIIB as well.

As a matter of fact, AIIB president, Jin Liqun, used to be the deputy president of ADB. He has expressed the desire to cooperate very closely with the ADB. ADB president, Takehiko Nakao, who used to work with me in Japan's

Ministry of Finance, has also expressed that ADB is willing to cooperate very closely with AIIB. To some extent, they could be complementary. There are lots of areas to cover for ADB. So ADB and AIIB together could cover more Asian countries and they could have complementary and mutually beneficial operations in the Asian region.

If you look at the world economy at this moment, I think the developed part of the world, the US, Europe, Japan and Korea included, has matured to a certain extent. Their growth rates have come down but I don't think it's a sign of weakening of these economies. I think it is the maturity of those economies. Per capita GDP of these economies has reached a very high level, US\$40,000-50,000. It is a very high level of living standard. With that kind of maturity, with that kind of high level of living standard, it is only natural that the growth rate would come down. For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growth rate is around 1 percent. Inflation has come down as well, to around 1 percent. Low growth rates and low inflation have become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most of the developed countries.

Of course, the United States is an exception. It is growing around 2 percent. The US does have an element of a developing country because of its demographic structure with Hispanic and African population increasing quite rapidly. The US is only the country where the population is growing, while population in countries like Japan and some European countries is declining.

I think it was 1999 when an American author, Andre Gunder Frank, published a book entitled “Reorient,” meaning that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had returned to Asia once more. The world economy had been changing its course. Asia is becoming the fastest growing region of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 think India is probably the key in this development. India’s influence is quite significant in the Middle East and East African countries. I think we should be closely watching how India performs in these countries, west of India.

For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India is a difficult country to understand. I always tell my Japanese colleagues that India is probably standing in the opposite corner from Japan. If you are to describe Japan in one word, it is homogeneity. Language is the same, people are quite similar, and throughout history we have never been invaded by other countries. It is a really homogeneous country.

If you describe India in one word, it is diversity. It is quite diverse in terms of race, religion, language, and others. Originally, it was occupied by Dravidians. Around 1500 BCE the Aryan race came down to India. India is in the middle of the Eurasian continent. So many races came to India. In terms of religion, India is also diverse. 80 percent are Hindus but with around 15 percent Muslims, 2 percent Christians and 2 percent Sikhs co-existing. Buddhism originated from India.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where domestic growth is limited should reach out to high growth countries like China and India to reap the benefits of their high growth. A lot of Japanese cars and parts producers now have operations in India. They are expecting the demand for car purchases in India to grow quite rapidly in the next 2-3 decades. India is now the country that many developed nations looking into as a place for active investment.

In concluding, I will say that Asia has been expanding from East to West to capture its dynamism.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Finally, commenting on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is now the only country that is divided after the German reunification.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will be very helpful to the region. As a matter of fact, for Japan North Korea has been a security threat. It may be true for other countries as well. Some kind of peaceful integr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would be quite helpful to the region's peaceful co-existence.

We welcome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ventually the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desirable. I hope that could be achieved within the next decade or two. I wouldn't expect that to happen next year. But the state of dividedness should be overcome and it could be overcome within the next decade or two.

The image features a large, stylized graphic of the letters 'Q' and 'A'. The 'Q' is white with a subtle gradient and a drop shadow, while the 'A' is dark grey. They are positioned in the upper half of the page against a background of concentric, light grey circles.

QA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Questions and Answers

Q I think Asia's development hinges on China's move, particularly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Do you think there is any contradiction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other countries' effort to develop their economy?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is almost monopolizing in many countries and regions, even in the eastern part of Africa.

A I don't disagree with you. But China is a major country in the world and its GDP will properly surpass that of the United States within next 10 years. Countries like Japan and Korea need to closely associate with China despite China's ambition that you have just described dominating the region.

I think Japan has a negative legacy vis-à-vis China because of the Japanese aggression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isn't really that good.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Japanese authorities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China's presence would increase.

Of course, the alliance of Korea and Japan with the United States is very important. We should keep that. While keeping our alliance with the US, we should improve our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would be desirable for the region. If Korea, Japan and other Asian countries cooperate together, we may be able to keep China's too ambitious desire to dominate the region in check.

Q Focusing on the macro picture you have presented, I am very much interested in Asia's long-term dominance in the future which is inevitable, more in terms of timeframe. The PriceWaterhouseCooper's model you cited earlier is based on a macroeconomic model which is equations, basically. What is lacking in there is some other elements which are not necessarily mathematical.

India and China are very different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West. In the West economic development followed cultural development, science and everything else to go with it.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as well as in India is very rapid. But it is exceeding the societal growth. How do you think these lagging societal growth will impact their growth? Do you think the macro model may negatively affect the economic growth?

A The macro model could be inaccurate sometimes. With regards to China and India, particularly India, I mentioned diversity. Diversity could be a negative factor. But if managed well, diversity could be a positive factor for that country. Coming from a country which is very homogeneous, I don't know how to manage such diversity.

To some extent, I think the Indian government has managed diversity quite efficiently. They have now established a nationwide sales tax to unify the country gradually. However, India is quite different from state to state. It is sort of a United States of India. One stat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 state and even the language is very different. It is a very difficult country to unite but so far I think the Narendra Modi government has been doing a fairly good job to unite the country to have a nationwide tax regime. I think that effort is now still on its way. That kind of unifying efforts would continue and probably be quite beneficial to India.



When President Donald Trump was here in Seoul, he delivered a speech at the National Assembly. He tossed the concept of Indo-Pacific in which actually President Trump encouraged Korea to play a linchpin role. My question is that Japan, US, Australia and India are the crucial components of the Indo-Pacific strategy. What is the stance of Japan on the Indo-Pacific strategy? Is this a security alliance or a security alliance plus an economic entity? My view is that Korea should join the Indo-Pacific concept, both security-wise as well as in an economic sense.

You said Japan should join the AIIB down the road. According to the early signs of AIIB management, the Chinese seems to be running the AIIB for their own interest in terms of territorial expansion into central Asian and even the African continent. What is your view on China's management of AIIB? Is this really serving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to provide funding for global projects? If Japan joins, do you think Japan can influence the AIIB's governance to serve as international public goods? Korea has already joined AIIB.

When do you think Japan will join AIIB?

A I may not be on the majority side in Japan. I am quite optimistic about the development of AIIB. I think we should join AIIB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I think it is quite possible for ADB to cooperate closely with AIIB. As ADB's president Nakao has already said, ADB is willing to cooperate with AIIB for the development of Asia. China is expecting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ventually to join AIIB. By participating in the AIIB, Japan together with the US can reduce the Chinese dominance. I think China is willing to accept that and it said it publicly.

The Indo-Pacific project is designed to keep the Chinese influence in this region in check to some extent. Bu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hat Japan would form a close relationship with India. Japan's relationship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is already very close. Southeast Asian countries, India, Korea and Japan strengthening cooperation would be quite helpful.

The India-Japan relationship has been quite favorable for the last 100 years. As far as Japan is concerned, India is the only country in Asia that Japan has a regular visit of prime minister and vice versa. Every other year, the Japanese prime minister visits India and every other year the Indian prime minister visits Japan.

At the same time, we need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China.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India to reduce the big Chinese influence in the region. I am one of those Japanese that are promoting much closer relationship with India. That will be really beneficial to the attempt to keep the balance within this region. China is a big country. We should not antagonize China in any sense. However, we should be able to create some kind of alliance in Asia to counter too much influence and dominance by China.

Q You said India is a very young country with a very young population. India has been said to have a great potential for so many years. But it seems their potential has not been materialized fully. What do think the reasons for that?

A I cannot pinpoint a reason for what you have pointed out. India has been lagging behind China for the development. But now India's performance is quite favorable. India has been growing at 7-8 percent and it looks like to continue for some time to come. India may be finally reviving.

And one thing to take note of is that the Indian middle class is now growing. Because of that demand for cars and electric appliances for example has been increasing quite rapidly in India. Potentially, it is a very lucrative market for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to get in and actually it is happening.


I said the Indian population is growing and its middle class may be starting to form at a very large scale. If that happens, 50-60 percent of the Indian population will belong to the middle class. Then, that would be a lucrative and productive market. The possibility of that happening, I think, is very high. I may be too optimistic but that kind of view could be maintained looking at what has happened in India for recent years. Narendra Modi has been doing a very good job, making the country grow at a very high speed. As I said earlier, India's GDP per capita is only one-fifths of China, so it has a big potential to grow, if managed well. So far, it has been managed fairly well. That is my view.

Q China invaded across Himalaya in the 1960s to take the land that they thought was theirs from India. How do the Indians remember the invasion by the Chinese army across Himalaya? Do they have any resentment or do they think it is just one thing that's just gone by?

A I do not know that particular issue that well. I have never asked the Indian government about that issue. But I think the India's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are not necessarily that bad. The current Indian government has said that it is contracting its diplomacy in old elections. That means that it does desire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I think the current Indian government is not anti-China and is trying to gradually improve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 do not know if there is any kind of vengeance remaining

in the minds of the Indian people. But as far as I know from the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so on, it seems to be having good diplomatic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including China. I do not worry about any India-China conflict at least for years to come.

 There is a book called “Kimchi matters” written by political economists and consultants in 2003 before the rise of India certainly and in the middle of the rise of China. The authors used the word Kimchi to refer to local dynamics. In other words, investors need to understand the local dynamics instead of imposing dynamics from outside.

Regarding India and China, the point they made really stuck with me over the last 15 years. People very often describe India as the largest democracy in the world. And then the critics of democracy often use that expression to actually impune democracy.

The authors made a point that in the long term the Indian people are more optimistic, more open-minded, and more innovative because they have the illusion of having democracy and having control over their lives because they can vote out local governments, provincial governments, and they can protest and no problem is hidden. On the contrary, in China you don't have that. There is no outlet even though on the surface you seem to have control.

The authors seem to have put more weight on the Indian

side in terms of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regime and health of the society. Maybe you can comment on that, please.

A What I am really impressed by India is that the quality of Indian elites is really superb. There are lots of Indi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m have come back to India to hold key positions. For example, Raghuram Rajan was made the governor of the central bank. Now he is back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these people are very hopeful about the future of India. If this trend of competent Indians coming back to India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dia will be more competent and continue to grow.

Q Germany decided to join the AIIB very quickly despite the friendly advice of the United States not to do so. I can also only recommend to join this institution because then you have a chance to influence it, not from the outside.

Now regarding my question on the AIIB and also on the ADB, according to your economic knowledge and overview of Asia, what should be the focus countries and areas for both 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I think there is a lot of internal fighting on what to concentrate. Even if you take Korea, I think Korea does not have big deficiency in physical infrastructure but you have the environmental and energy problem, for example. Other countries like

Vietnam are still developing and emerging. They have both physical infrastructure problem still and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 What is your view?


A First of all, as I said, ADB and AIIB should cooperate and could perform complementary functions in developing the region. I think the focus country should be India and the countries west of India.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fairly well developed and may not need further substantial ai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ADB and AIIB. But India needs it and it has a lot of potential. Middle East countries and African countries need their help as well. I think ADB and AIIB should move eventually to west.

Germany joined the AIIB very quickly and I think Japan should do the same quickly, too. I don't know why Japan has not joined yet; maybe it's because of the US. But by joining the AIIB, Japan and the US can reduce the Chinese dominance in the AIIB. I think Japan should join as quickly as possible.

Q I agree that India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Indian bureaucracy is infamous. For example, in the energy area, there are six different ministries concerned with each speaking in its own voice. I know that Japan is now carrying out a huge national project in India connecting Mumbai and New Delhi by establishing a new industrial corridor. To what extent did the Japanese overseas development aid (ODA) play the role in winning various

national projects of India?

Indian companies and local governments really prefer project financing done by investing companies by themselves. In this regard, how do Japanese companies manage to provide project financing in the way Indian local governments wish to have? Do you think Japanese companies feel any risk in terms of project financing? Do Japanese companies look for consortiums with other Japanese companies or with foreign companies? So for example, a Korean company can work in a specific SOC project with Japanese companies. I would like your view on this. Is there any specific example of success or failure in terms of carrying out specific projects in India?

 You may know better than me in this area. But as I said, Japanese companies are very eager to get into specific industries in India, particularly car producing companies and car parts companies. They are very aggressive as well. Toyota has a big establishment in Bangalore, followed by Honda and other car producing companies. Many Japanese companies are now seeing India as a rapidly growing market. Demand for cars for example would increase very rapidly. So investment in India seems to be on the high tide at this moment. I think it will continue for some time to come. Many Japanese say India is the destination of the Japanese investment.

Q Right now in Korea we have a good momentum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But some young Koreans are not sure that reunification will make a good economic sense and effect. We have seen the German unification case. In the beginning, they had some difficulties but at the moment, the German economy is very strong and stable. Do you think the reunification will provide good economic opportunities?

A The German unification is quite successful on the whole. They also have some problems, particularly in the former East German part. Unification is not an easy task. But I think with the passage of time, unification would create positive results.

With Korean unification, you may have some problems at the initial stage because of different regimes, different modes of operation and so on. But looking at the cases of Vietnam and Germany, with the lapse of time, the unified countries have functioned fairly efficiently.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카스텐 자흐
(Karsten Sach)



카스텐 자흐

Karsten Sach

카스텐 자흐 박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독일 협상단 대표이자 독일연방환경부 기후정책국장으로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관해 메르켈 독일 총리의 핵심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강연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과 협력에 힘쓰고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¹

카스텐 자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독일 협상단 대표 겸
독일연방환경부 기후정책국장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심차고 공격적인 기후변화정책이 없다면 미래의 행복과 경제 개발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올바르게 이행하는 기후변화정책이야말로 성장, 혁신 그리고 사회적 포용의 동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상적으로 기후변화의 중대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는 사람들은 특히 포도주용 포도를 재배하는 연장자들은 벌써 주변 기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문명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적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우, 인도의 가뭄, 캘리포니아의 산불, 중국과 시에라리온의 산사태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각한 가뭄은 이민이 늘어나는 압박 요인이 되

¹ 이 글은 2018년 6월 29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사 초청 포럼에서 카스텐 자흐(Karsten Sach)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 독일 협상단 대표 겸 독일연방환경부 기후정책국장이 강연한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강연자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고 있습니다. 재보험사의 통계만 봐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극단적인 기상 이변 다음에는 이른바 ‘저속 징후 영향 (slow onset impacts)’이 나타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녹고, 인도 아대륙(Indian Subcontinent) 전체에서 물의 패턴이 바뀌고, 해수면이 심상치 않게 상승하고, 북극 빙하 보호막이 감소하고, 산호초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불과 1도C만 올랐을 뿐인데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관련이 있지만, 우리의 에너지 생산 방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국가마다 경제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원 그리고 경제 개발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경제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지점도 다릅니다. 이 내용은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20 국가² 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뚜렷이 보입니다.

2 G20 국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 유럽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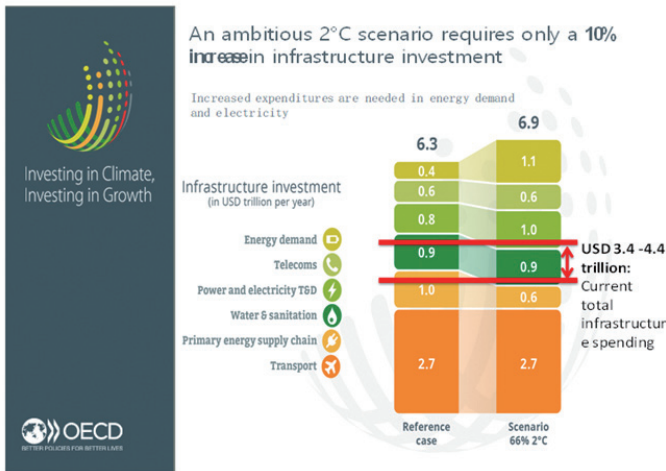
이해하는 방법을 습득했습니다. OECD와 협업하는 것이 국내 기관들과 협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OECD에서는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2) 기후변화에 비용이 소요되는가, (3) 기후변화 정책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경제 성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을 작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초청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적극적 기후변화 정책은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은 적절히 시행되면 다양한 혜택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투자에 총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설정한 목표인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온도 상승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할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상이한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경제·금융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정말 당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나 독일과 같은 모범적 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비할 준비가 돼있어야 합니다. 매일 같이 경제를 재창조해야 하고, 새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더스트리 4.0에 투자해야 합니다. 훈련 방법도 차별화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고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경쟁자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투자에 약간의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에서 온도 상승 수준을 2도C 미만으로 낮추는 길을 택한다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이라는 모든 혜택도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교통, 전기통신, 수자원 등을 포함한 모든 일반 인프라 포트폴리오가 영향을 받습니다



독일연방환경부에서는 사회의 어디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어느 부문이 성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요즘 호황기에 접어든 부문으로는 독일에서 만든 친환경기술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가 누리는 번영이라는 특권을 다른 수십 억 명

이 누릴 수 있게끔 노력하는 미래에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떤 것
일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내적 스트레스
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동시에 인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
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녹색기술과 자원 효율성을 아주 매력적
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것들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 방향을 가리키는 정책의 틀을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정상들은 여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21세기 후반기 대략적인 탈탄소화(de-carbonizing)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필요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에 따른
절차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환경 제품 시장이 성
장하고 있습니다. 녹색 인프라 투자를 묶어서 금융 투자자를 유
치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한 녹색채권의 수요도 치솟고 있습
니다.

상황이 좋으면 독일 경제는 2% 성장할 것입니다. 녹색기술 부
문은 8.8% 성장했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녹색기술 부문보다 규
모가 더 큰 부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을 더해 보면 어느 부
문이 성장하고 어느 부문이 축소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석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석탄뿐만이 아닙니
다. 하지만 석탄을 선택한 이유는 석탄을 보면 우리가 경제를 어
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사람들의 심리를 관리하는 데도 중
요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부문은 기존의 연소 엔진에서

기후 중립적인 연료로 실질적 이동이라는 전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에서 재생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녹색기술 전체가 이미 독일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홀히 다룰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녹색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동인이라고 봅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이 G20 국가 전체는 아니라도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도 미국에서 태양열 발전이 호황을 누리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풍력발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전지 패널의 55%가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큰 시장은 규모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여러 부문에서 녹색기술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성이 미래의 성장 시장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에서 시장 결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전자 모빌리티 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존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인프라를 설치할지 등의 도시 콘셉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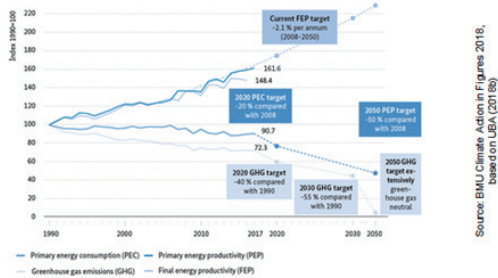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이런 도전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

까요? 어떤 정책과 틀을 만들었을까요?

독일에서 기후변화정책은 1990년경 출범했습니다. 첫 보고서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정부간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창설되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대규모 기후과학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각 부문을 모델링하여 정책을 정의한 기후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따로 움직인다(비동조화)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두 배로 오른 데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8%나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정책 논의를 거친 후,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화석 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절차입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핵에너지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탈핵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은 탈석탄 움직임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conomic growth, GHG emissions and energy productivity



Depicted is the decoupling of economic growth and energy productivity from GHG emissions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그리고 풍력발전이 점차 효율화되면서 급격한 성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풍력발전을 시작했으나 지난 몇 년간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매우 야심차게 설정한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28% 감축한 수준입니다. 예측에 따르면, 32%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 보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꾸준히 탈탄소를 진행해 대략 2050년에는 완전한 탈탄소라는 독일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차이를 좁히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대책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어떤 국가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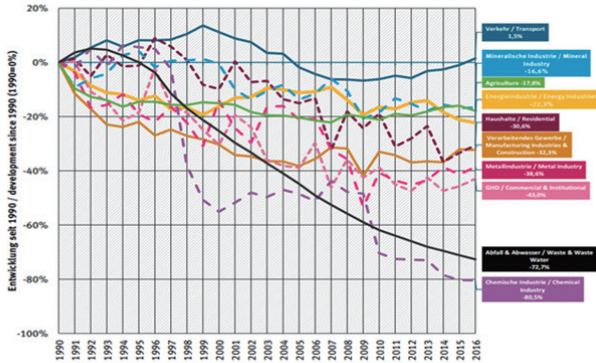
제 해결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독일의 과제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탈핵과 탈석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의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생산 능력이 더욱 향상되어 재생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력망 전체의 구조를 새로 짜야 합니다. 송전선을 건설하고 이러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추이입니다. 해결책을 가장 잘 찾아낸 부문은 화학입니다. 하지만 검은색 선을 보십시오. 검은 선은 폐수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격한 폐기물 분류법을 시행하고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명이 오래 가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재료를 재활용할 수 없는 제품의 경우 소각을 통해 폐기물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으로 생물학적 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에서는 효과가 크면서도 간단한 규제 조치를 통해 재료 순환을 유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은 1990년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사륜구동과 대형차를 몰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큼니다. 농업 부문은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도전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Trends by Sector



이제 지금 이후로 어디로 갈지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50년을 대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후변화계획 2050”이라고 하는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0년 단위로 나누어 탈탄소화를 향한 비교적 동일 선상에 있으려면 각 부문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목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맞춰 설정했습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사회 전체적으로 거의 혹은 완전히 탈탄소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미래의 인프라와 제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공장을 인수하고 새 인프라를 건설하는 등의 새로운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를 투자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기후 계획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정하되 5년마다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매 5년마다 계획을 조정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 부문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계획은 정기 보고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연계하여 최적의 옵션을 논의하고 업계와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과학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 계획은 환경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5년 주기의 정기적 개선이자 훌륭한 학습 과정이자 5년 이뤄지는 업데이트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1퍼센트 포인트 고정된 비율로 정하지 않았습다. 독일에서는 “거의 온실가스 중립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뒤에는 통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최소 95%는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이를 뒷받침할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대해 무용한 논의를 하는 동안 일부에서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철강이나 시멘트와 기타 자재를 만들 것이며, 알루미늄 부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놓고 대책 없이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커다란 문제는 에너지와 전기 부문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모든 부문에서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문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1990년 수준 대비 55%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산

업과 경제는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1990년에 대기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의 절반 미만으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 부문과 건설 부문은 55%선을 넘어 60% 이상 줄여야 합니다. 교통 부문의 감축 목표는 4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40%를 달성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각각의 부문이 기여해야 합니다.

건설과 난방 부문에서는 단열재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게 감축되는 영역은 농업 부문으로서 아마도 교통 부문 다음으로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Sector targets in the Climate Action Plan 2050

Field of action	1990 (in million tonnes of CO ₂ equivalents)	2014 (in million tonnes of CO ₂ equivalents)	2030 (in million tonnes of CO ₂ equivalents)	2030 (reduction in % compared to 1990)
Energy sector	466	358	175-183	62-61 %
Buildings	209	119	70-72	67-66 %
Transport	163	160	95-98	42-40 %
Industry	283	181	140-143	51-49 %
Agriculture	88	72	58-61	34-31 %
Subtotal	1209	890	538-557	56-54 %
Other	39	12	5	87 %
Total	1248	902	543-562	56-55 %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우리 환경부가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는 뒷받침할 조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할지, 자동차 부문을 규제해서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해야 할지, 농업에서 메탄을 더욱 감축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계획을 설계하는 주요 책임은 각 부처에 있습니다. 교통부는 40% 감축 목표 달성의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에

너지부는 에너지 믹스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을 60% 낮춰야 합니다. 각 부처가 계획을 이행하고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한 다음, 우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부는 부문 간의 연결을 정의하는 전체 전략의 수립을 담당합니다. 환경부는 재무부와 더불어 금융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출범시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하나로 접합시켜 총리와 정부가 결정을 하도록 보고합니다.

환경부는 모든 감축 목표를 입법화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내년에 이 모든 것을 기후변화법에 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구속력은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던 목표를 구속력 있는 법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독일에서 진행된 그 과정이 산업계의 시각을 바꾸어놓았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BDI 독일산업연합(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은 보통은 기후변화에 대해 그다지 진보적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도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자신들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산업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장장 18개월에 걸쳐 ‘모든 배출량을 80% 낮추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를 95%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했습니다.

독일산업연합에서는 60% 감축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다른 압력 때문이라도 저탄소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0%까지

는 국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5%가 되면 다른 국가의 산업과 경쟁력 문제가 생깁니다. 더욱 규모가 큰 수준의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산업만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면 경쟁 측면에서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농업연맹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통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조사나 제 연구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은 모든 연구소에서 가능한 저탄소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정(coalition) 협정에서도 우리의 야심찬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2019년에는 법제화할 기후대책법을 만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을까요? 가장 상징적인 이슈가 모든 비정부기구와 이웃 유럽 국가의 마크롱 대통령이 독일의 신속한 탈석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기 믹스는 기본적으로 약 40%의 무연탄, 10%의 원자력, 36%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약간의 가스로 구성됩니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6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30년에는 전기의 3분의2가 간헐적 재생에너지원에서 공급될 것입니다.

한국이나 독일처럼 중공업이 발달한 국가는 정전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시스템의 보안을 높여야 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이웃 국가들과 긴밀히 상호 연계된 국가입니다.

EU is committed to reducing emissions by at least 40% until 2030.

	GHG emissions reduction (compared to 1990)	Share of renewables in final energy mix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2050	- 80-95 %		
2030	at least - 40 %	32% (tbc)	32.5% (tbc)
2020	- 20 %	20 %	20 %

- Foundation for INDC submitted in March 2015 before COP21 and ratification in September 2016
- Long-term: Greenhouse gas neutrality as early as possible – will soon be defined in more detail in a new EU climate strategy

독일은 이미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제
 가 사는 베를린의 경우, 연평균 전기 발전량의 50% 이상을 차지
 하는 전력망 사업자가 간헐적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10년 전 기술자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5%가 넘어가면 전력망
 의 안정성이 위험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화된 지금의 세
 계에서는 현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고 에
 너지 시스템을 보다 지능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
 더스트리 4.0(Industrie 4.0)과의 연결 고리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시대에는 생산과 연결이 지능화되는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
 다. 벌써 이 부문에서는 그러한 미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래되어 평가절하된 석탄발전소는 매우 저렴
 합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시작했을 때 바깥에서는 “이제 독일은
 프랑스에서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수입하겠지”라고 생각했
 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독일은 연간 시간당 60테
 라바이트에 달하는 전기를 이웃 국가들에 수출합니다. 전기가 전

력망에 들어오면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것인지 원자력으로 발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수입할 때도 있습니다.

독일의 전기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탄은 저렴하고 재생에너지는 한창 때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생산 과잉이 엄청납니다. 발전소 운영에서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단일 시설을 잘 설치하고 나면 한계 비용이 0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석탄입니다. 다만 문제는 석탄이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 수요가 많아 가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늘리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60% 감축하고, 최종 중단 기한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독일 경제에서 큰 논쟁거리입니다. 석탄발전에 의지하는 지역이 두 개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산업계, 지역, 노동조합,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수립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이행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언제 석탄발전을 최종 중단할지, 2030년까지 석탄 에너지 60% 감축이라는 목표를 언제 달성할지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문과 건설 부문에 2개의 유사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이 결과를 놓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회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결과를 내줄 것으로 생각합니

다. 또한, 우리도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

아까 독일산업연합의 연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그 결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독일산업연합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여한 산업 부문만 68개이고, 개인은 600명 이상입니다. 이 연구는 작업반(working groups)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최고경영자들과 대화한 바 있는데,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스턴 컨설턴시 그룹(Boston Consultancy Group)과 프로그노스(Prognos)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의 61%는 이미 현재의 정책과 궤를 같이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저항이 있더라도 큰 흐름은 탈탄소화가 생각의 방향입니다. 가치가 하락한 투자의 수명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80%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95% 수준은 한계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수용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독일의 석탄위원회(Coal Commission)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과 경제적 흐름인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규제하지 않으면 수원이 좋고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수원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적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틀

을 만들면 지나치게 심한 사회적 불균형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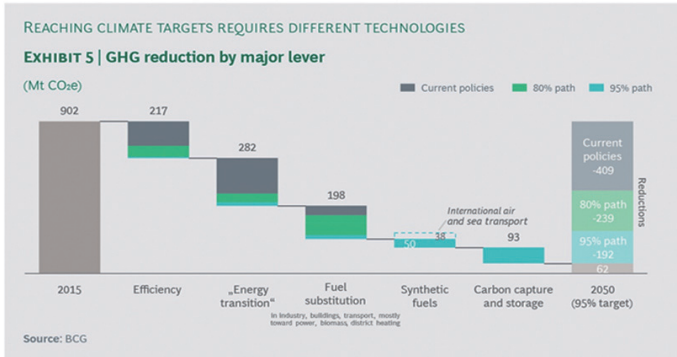
아직 어떤 것이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나타날지 정확히 모릅니다. 전기 시스템은 주로 전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연료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송, 항공운송, 장거리 화물운송 등의 부문에는 액체나 가스 연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연료를 아마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아프리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막대한 기회가 됩니다.

스위스에서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DI에는 ‘기후 경로’가 있습니다. 산업계 내부에서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현대화를 촉진하고, 현대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실습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제품 수출시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95% 경로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는 저장 용량이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에너지 생산 부문에는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공업에도 필요합니다.

BDI: "Climate Paths Germany" (5)



마지막으로,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 독일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80–95% 수준은 1990년 수준이 기준이고, 다른 수치는 2005년 수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40%라고 하면 1990년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54%에 해당합니다.

지난주 수요일(6월 20일)에 이 수치를 확정했습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모여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회원국과 유럽이사회는 목표를 적게 잡기를 원했고 유럽의 회에서는 더 높게 목표를 설정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바스켓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공업과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산업을 모두 모아 놓고 유럽 전체에 적용하

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배출량을 2.2% 감축해야 하지만 산업계는 그들끼리 배출량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에는 유럽 내에서 주로 국가 법률로 다스리는 기타 부문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2005년 수준보다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유럽연합에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목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배출량 거래제도(ETS)와 이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다른 시스템이 모두 적용됩니다. 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회원국에서 쿼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유럽 법률에 따라 정상적 위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유럽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TS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의 경우,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유한 국가는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합니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유럽연합에서 가장 빈곤한 불가리아 같은 국가는 의무가 적습니다. 이 수치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의 경우, 2005년까지 추진됐던 경제 구조조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불가리아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하였고 지금은 동일한 속도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발표를 끝내기 전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유럽의 국가수반과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각 회원국

이 2050년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독일의 전략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전략을 세우도록 권했습니다. 한국도 내년에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니 무척 기쁩니다. 어제 한국은 업데이트된 온실가스감축 목표(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INDC)도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당사국간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으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세밀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독일은 지난주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을 초청한 이른바 '페터스베르크 기후대화(Petersberg Climate Dialogue)'를 폴란드와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참석해서 지난 8년 동안 기후변화정책은 환경주의자들의 보고 같은 것이 아니라 정상들의 화두였다며 지지를 보였습니다.

탈라노아대화(Talanoa dialogue)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날짜를 정하는 중이고, 독일은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정책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책 도구도 함께하지 못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두 가지 이슈는 바로 금융 프레임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다년 금융 프레임워크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논란이 될 만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의 25%를 기후변화 활동에 쏟아야

합니다. 나머지 75%가 기후변화 정책에 역행하는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달에 큰 규모의 제안서를 발표하였고,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금융 기관에 대해 늘어나는 사법 위험을 낮추려면 기후변화정책과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금융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험이 있는지, 포트폴리오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명성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사법적 위험도 피해야 합니다.

물론, 공통적인 농업정책은 있습니다. 농업에서 집약적 농업에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혹은 식품을 더욱 좋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친기후적으로 생산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성장과 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기술 혁신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경로의 핵심이지만, 사회적 학습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환에는 지속적으로 검토되는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채찍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제와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과 독일에서 기후변화정책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산업계와 함께 이를 어떻게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양국

의 사회와 산업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독일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얻고 싶다면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QA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질의 응답

Q 저는 지난 10년간 보험 분야의 여러 국제회의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가장 자주 거론된 주제가 기후변화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기업, 특히 생명보험, 재산, 재해 그리고 재보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민간 부문의 입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문과는 얼마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십니까? 정책을 구성할 때 민간 부문의 목소리도 반영되니까?

A 보험 부문은 가장 큰 협력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위험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험의 사업 모델입니다. 이는 정치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장기적 사고에서 저희와 보험업계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물론 사회 전체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뮌헨리(Munich Re)나 스위스리(Swiss Re) 등의 보험사가 자사의 보험 정책에 따라 고객을 평가해 제공하는 데이터를 매우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는 업계와 긴밀히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을 비롯하여 사회 다방면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업계는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에도 참여합니다. 결정권은 없지만,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한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확한 업계의 시각을 간과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고 또한 우리는 기업을 지원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 내에 필요한 합의를 얻어내는 데도 필요합니다.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하고 실천 계획을 세울 때마다 기업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독일산업연합의 연구와 같

은 활동을 권장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 사무실에서 5시간 정도 논의한 후 그 모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제가 재촉할 필요가 없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 내부 보고서를 전달하고, 주제가 적절한지 물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는데, 몇 가지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전검사(pre-screening)를 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집중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엄청난 기회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사업 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이해할 만한 합니다. 자원 집약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석탄 채굴 회사는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Q 독일이 에너지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중공업과 기술 산업 조합의 측면에서 독일과 한국의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말씀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독일은 여차 하면 이웃 국가, 특히 프랑스의 에너지 공급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치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적 에너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독일에서 무엇을 배우고, 에너지원의 장기적 조합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원자력발전의 미래에 대해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경보호론자와 원전산업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아마 북미 대륙이 지리적으로 넓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 논쟁의 결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명확히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섬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에너지 조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이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물론, 간헐적 에너지를 사용하려면 이런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 국가와 연결되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회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생산 능력의 10%는 이웃 국가와 상호 연결하고, 2030년까지 이 비율을 15%로 올리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어딘가는 항상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이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 매우 저렴한 경제적 잠재력도 있습니다.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가 모두 유연하고, 서늘한 집이 있으며, 이제 에너지 비용이 적거나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경제 신호를 산업에 보낸다면, 산업계에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격이 높으면 산업계는 꺼리게 될 것입니다. 상품을 평소에 28도에 보관할 수 있다면 26도가 되든 32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며칠간 보관해두면 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쌀 때는 경제 신호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측정기를 사용한 인센티브로 소비자가 언제 세탁기를 사용해야 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에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 에너지 저장 분야는 태양열 TV 정도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태양열 저장, 각종 저장 능력을 통해 에너지 저장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이동성 분야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특정 지점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 일본이나 영토가 방대한 러시아까지 상호 연결을 구축하려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덕분에 섬 국가라도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섬 국가에게는 더욱 어렵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에너지 조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드릴만한 조언이 없습니다. 독일은 30여 년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성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가격이 그다지 경쟁력이 없습니다. 더욱 비싸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힝클리포인트(Hinkley Point)를 보십시오. 투자를 받기 위해 재생 에너지 공급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발전 회사 EDF는 거의 파산에 가까운 상태로 운영됩니다. 핀란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어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건설된 원자력과 현재 그 원자력의 운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지은 원자력 발전의 경우, 민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국가가 보증할 때뿐입니다. 현대 기술이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펴본다면 알겠지만, 원자력 발전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상호 연결은 되더라도 경제적 이

유로 생산 능력이 소규모가 될 것입니다.

원자료를 얼마나 오래 운영할지는 각자가 결정할 몫입니다. 중앙 집중형으로 생산된 전기에 얼마나 오래 의존할지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전력망의 중앙 노드에서 소수의 새로운 가스발전소가 안정화되려면 지금부터 2050년까지 중간생성물(intermediate)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비용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에게 경제성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지만, 그런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은 간단합니다.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점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행위에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업이 수익을 내는 이유입니다. 독일의 2대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 서비스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코멘트: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정책 인센티브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상당히 분열된 한국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산업의 각 부문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 차단입니다. 한국은 소매 분야 외에도 어디서나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배울 만한 교훈이 있습니까?



아마 플라스틱은 G7과 G20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의제 중 하나입니다. 통계를 보면 2050년에는 바다에 해양 포유류와 어류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일부 맹그로브를 오염시킵니다. 그것 자체는 플라스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아닙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물질을 더욱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현재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고, 비닐 봉지보다 수명이 오래 가는 상품을 생산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할 경우에는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전략도 필요합니다. 자카르타(Jakarta)나 라고스(Lagos)에 가면 한국과 같은 나라가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몬순과 홍수가 발생하면 무단 투기한 쓰레기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들에게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식 제고와 규제와 함께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원 사례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한국에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알지만, 소각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료 가치 전체를 업사이클하거나 리사이클하면 사회 전반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쓰레기 수거에 협조하고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는 것을 ‘무덤에서 요람까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카르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의 지역 당국에 과부하가 걸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 기업, 즉 제품을 판매한 민간 기업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법안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 이후에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는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의 정치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들 자국의 지방에서 정말 낭비가 심하다고 넋더리를 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을 도입하고 쓰레기 수거를 위한 지역 일자리 만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제대로만 하면 경제적 기회가 있습니다.

Q 발표에서 말씀하시길, 기후변화정책은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이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후변화정책을 도입한 결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유명 제조기업의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는데, 국제 협력이나 기후 목표 달성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소매 서비스 기업입니다. 초창기에는 카탈로그 소매 서비스 기업이었습니다. 독일의 오토 그룹(Otto Group)인데, 오래 전부터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독일의 억만장자인 오토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기초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지난 40-50년간 매우 높은 수익을 냈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핵심 경영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미래의 후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한 가족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설계상 경영자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에 기반한 기업과는 다릅니다.

둘째, 독일의 국제 운송 대기업 DHL입니다. 원래 이름은 도이치포스트(Deutsche Post)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명문 아헨대학교(University of Aachen)에 택배 운송용 전기 배송차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이 차량을 구매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8-16km를 운송하는 데 알맞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셋째, 보쉬(Bosche)나 지멘스(Siemens) 같은 기술기업과 지금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열 전지 부품을 운송하는 소규모 기업이 있습니다. 첨단 부품이 많이 존재하고 수많은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기업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

다. 전 세계 정치계와 글로벌 외교에 불안을 심었습니다. 트럼프가 탈퇴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국의 탈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가 협약에서 탈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기업과 주(州)에서는 기후정책을 더욱 강조합니다. 독일은 미국과 오래되고 깊은 우호 관계에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미국은 대통령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G20 국가 20개 중 19개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강력히 지지한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국가적 차이를 존중하는 시스템인 동시에 공조와 협력 그리고 통합을 주장합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널리 적용되는(one-size-fits-all) 국가 외교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Karsten Sach

Dr. Karsten Sach is Germany's Chief Negotiator for UNFCCC COP and Director-General of Climate Policy, European and International Policy of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He majored in law and has conducted research and given lectures on climate and energy policies.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¹

Karsten Sach

Germany's Chief Negotiator for UNFCCC COP
Director-General of Climate Policy,
European and International Policy of the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There are two points that I would like to highlight. First, without ambitious and aggressive climate policies, there will be no future well-being and economic development. Second, we strongly believe that climate change policy that is rightly done can be a driver for growth, for innovation, and for social inclusion.

Climate change is already happening and serious impacts can already be observed day by day. That is just a very beginning. But for those who look carefully and in particular if you talk to elders who are wine growers, they just see that the climate around them is starting to change. We can adapt to many of these changes. But there are limits to the adaptation if we want to live in the civilization which we know today.

¹ This is the transcript of the speech by Dr. Karsten Sach, Germany's Chief negotiator for UNFCCC COP and Director-General of Climate Policy, European and International Policy of the Federal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at the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June 29, 2018. The views expressed here are the speaker's.

Recent examples of increased weather events include the heavy rain and floods in India, forest fires in California, and landslides in China and Sierra Leone. Serious droughts in Africa are just pressurizing more migration. You just have to look at the statistics of our reinsurers that there is something happ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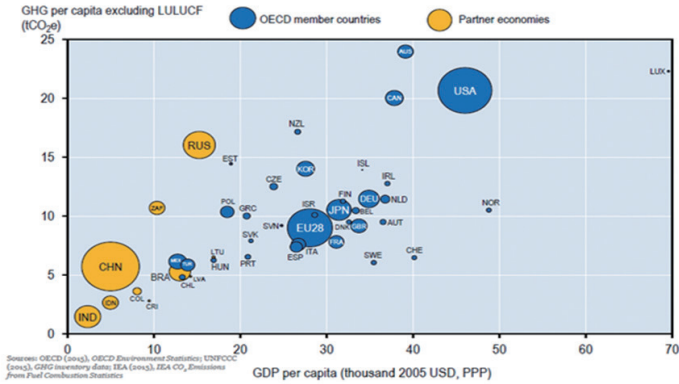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next to extreme events is something we call “slow onset impacts” such as melting of glaciers all over the world, changing the water pattern for the whole Indian subcontinent, significant sea level rise, decreasing Arctic Ice shields, and irreversible damages to coral reefs. That happens with a temperature increase of only 1 Celsius degree above the pre-industrialized level. So what we need is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It is a problem relating to all our activities but at the core it is about the way how we produce energy. As the graph below shows very clearly, we recognize that the starting points of our economies are different. They are very different in energy efficiency, in energy sources, and as to where we put our priorities in our economic development. They are different from where we are in our strive for economic prosperity. That is what you are seeing in the graph. You see very clearly that the G20 countries² are responsible for the huge part.

² G20 include: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Korea,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Turke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ll countries have different starting points



If you want to change the pattern how we produce energy and how we design our economic prosperity, climate change is not only an environment issue. It is at the heart of policy framing, it is at the heart of economic policies, and it is at the heart of what leaders have to decide. That was the reason why we put climate change very high on the agenda of our G20 Summit in Germany.

There is a perception in the public and in industry built on the developments we saw in the past that active climate policies cost money. We commissione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not some environment think tank, to look into that matter. The process we saw was as important as results. We put eight different departments of the OECD together with different data sets, different methodologies, and different modelings. They had learned to understand each language. The OECD was much better than we normally organize within our countries. Th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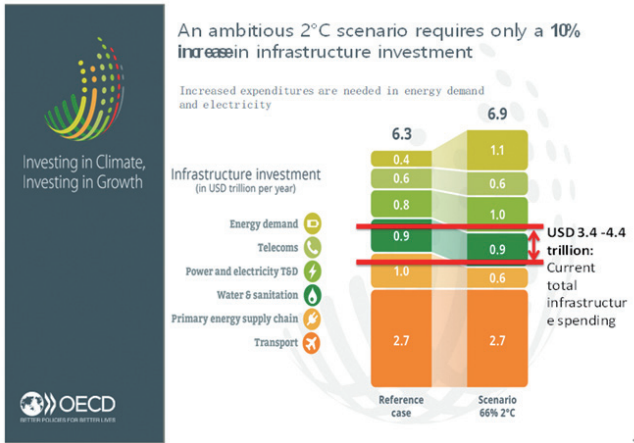
should look the following – (1) What is it? (2) Does climate change cost money? (3) If rightly done, does it have the potential to boost economic growth? They found the latter. The OCED Secretary-General, Angel Gurría, was invited by the Chancellor Angela Merkel to present that at the G20 Summit in Hamburg last year.

The headline is: “Yes, ambitious climate policies do not harm economic growth. If rightly done, they are a driver for investment from which multiple benefits will be derived. It has a net effect on future investment and it has additional fiscal incentives. Of course, you have negative effects on energy prices. But in total the net effect on GDP is a positive one. Here you have a scenario of what it means if we stay below 2 degrees which is the Paris target. They use economic and financial models of what the different impacts are.

The second thing is: “Is there something where we really readily change what we would be doing anyhow?” You see that in model economies like Korea or Germany. We all have to stay fit for the future. We need to reinvent our economy day by day. We need to invest in new infrastructure. We need to invest in Industry 4.0. We need to train our people differently. We need to have other courses at universities. We need to react to new competitors who are able to build and produce more cheaply. So what it is is just to tip a little bit the kind of investments. If we go to pathway to stay under 2 Celsius degrees, in aggregate we have an increase in new

infrastructure investment with all net benefits for increased job creation and for increased economic prosperity.

As you can see, all normal infrastructure portfolio including transport, telecommunications and water is impacted.



We at the ministry are regularly investigating just where the growth areas of our society are, which sectors are growing and where we see economic opportunities for our countries. One of the booming sectors is green tech made in Germany.

The key findings of our report is first, we look at the situation what will be the demands of the future in a world where we have population growth and where we strive other billions to become as prosperous as we have the privilege to be. But we have limited resources and we have more stresses inside. At the same time, we humanity want to cope with these challenges. The green technologies and resource efficiency will become something that is pretty attractive for

all of us. They will become driving forces.

Secondly, we have set the policy framework which points in that direction. We have all our leaders in summits and in the legally binding form they agreed to roughly de-carbonizing their societ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century. It is also not just a process driven by necessity but also by policies. You see it already.

That is just a beginning that the market is growing. The market for environmental goods is growing. You see skyrocketing demands for setting up green bonds just to finding vehicles where the green infrastructure investments can be bundled and make attractive for financial investors.

In Germany, if we are good, we have an economic growth of 2 percent. What we see is the green tech sector has grown 8.8 percent. Yes, there are other sectors which are bigger than the green tech sector in Germany. But if you just add up these growth rates, you see which sectors will be becoming bigger and which will be shrinking.

There is a big debate nowadays on coal. Coal is not the only one. But I chose coal because it's about how we think economy and for the pipe psychology it is important. Our automotive sector is a big one how to get the transformation from the classic combustion engine to actual mobility for climate neutral fuels. That is the big point. Overall green technologies from water to renewable energies already have a

rate of 15 percent of our GDP, so it is not negligent.

Green tech, we think, is a driving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ound the globe. What you have seen in our country is happening in most of the G20 countries, if not all. Let alone what President Trump is saying, you see solar power booming and boosting in the US. You see wind power increase in China. 55% of solar panels were installed only last year. It is skyrocketing. Big markets create effects of scale. Prices have come down very considerably.

There is a robust demand for green tech in Germany in different sectors. We think sustainability is one of the future growth markets because we see the shift in the market decisions taken by the Chinese and the Californian markets. We have a big shift. This is not just electric mobility.

That is very much combined with how we design the cities we want to live in in the future. So it has something to do with urban concepts as to how we place workforce and live together and what kind of infrastructure we put in between to create a sustainable l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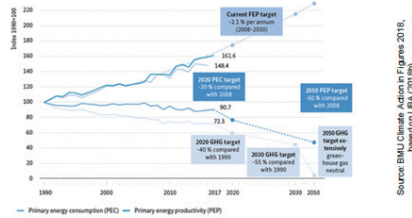
So, how are we trying to cope with these challenges for Germany? What kind of policies and frameworks do we put in place?

Climate policies in Germany started around 1990. We had the first report which indicated that there is a big problem

looming. In the second of the 1980s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as founded. We had a big climate science conference in the late 1980s. Since the 1990s, we have had climate programs where we modeled each sector and where we defined policies. In the beginning we started with a non-binding matter. But what we have seen since then is that we decoupled our economic growth from greenhouse gas emissions, so we doubled our economy basically and our greenhouse gas emissions went down 28 percent.

Then due to the policy discussion we had in Germany, we created something called “energy transition” that we are in the process of rebuilding our energy system which was largely dependent on fossil fuels and at that time nuclear energy. We are moving out of nuclear energy because we have widespread consensus in our society that the risks of nuclear energy are too high. Now we are also organizing the move out of coal. Here you see again some figures on economic growth, greenhouse gas emissions falling, and the increase of energy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GHG emissions and energy productivity



Depicted is the decoupling of economic growth and energy productivity from GHG emissions and primary energy consumption.

We also have to see that after we harvested the easy winds getting more efficient, it became more difficult. We had winds in the very beginning by restructuring our economy but it became more stable over the last years.

The projections show that we will have difficulties to meet our absolutely ambitious 2020 target. We put voluntarily upon us to reduce our green house gas ambitions by 40% by 2020. We are at 28%. Our projections show that we roughly come to 32% which is very good on a worldwide scale. But it is below our own ambitions which have a steady curve down to de-carbonization by roughly 2050. So we need to get quicker.

The question is how we can do that. The conclusion is that we need not to engineer the margin but we need to take far-reaching political measures and decisions to enhance the speed of transition. That is something that all of our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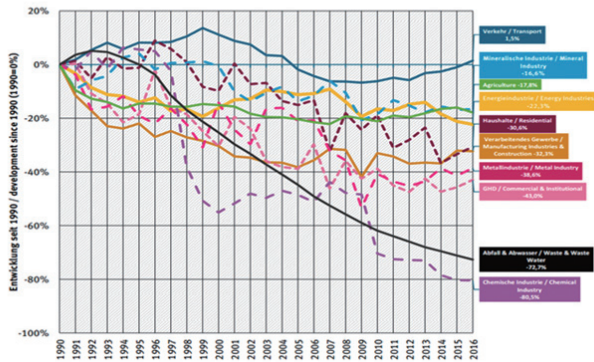
face. You see that some countries show us how to do that.

Our challenge in the energy sector is moving out of nuclear power and coal at the same time, while building the new energy system. It is not the price of renewable energies which is the cheapest source by now on new capacity built in the German context. You need to reorganize your whole grid. You need to build transmission lines and you need to fight for the support of your population for these new infrastructure building.

Below you see the trends by sector. The best sector that finds the solutions is the chemical sector. But look at the black part which is waste water and waste.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is sector have decreased by more than 70%. Why? We exercised and applied a strict waste hierarchy. The first one is we build products in the way that they live longer. We need to re-use them. We need to recycle. For those we cannot recycle materially, we burn it and use the energy content of that waste. But that has one important factor. We make the waste in earth, so it doesn't just process biologically later on. That is why in that sector by a very easy regulatory measure we are closing material cycle and cutting down greenhouse gases.

In the transport sector we are roughly at where we were in 1990. We don't decouple emissions because we drive four wheels and bigger cars. So there is a big problem.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 are not very good. Challenges are ahead.

Trends by Sector



What are needed are clear signals of where we want to be beyond today. That is why we design the strategy where we want to be in 2050. We call that “Climate Change Plan 2050” which cuts down the cake for 2020, 2030, 2040, and 2050 showing where sectors need to be in order to have a relatively equal path to de-carbonization. We set out the target in line with the Paris agreement. We said that we roughly or almost want to de-carbonize our society by 2050.

By this we change how investors look on what infrastructure and what products we will have in the future. When is the best time to do this new investment of buying a factory, building new infrastructure, etc.? You have to build it into your investment plans.

As always, such a climate plan is very complicated. But there are two messages in it. A plan is a plan, not a fixed

grip. So you define targets but you reassess in five-year steps. Every five years you make adjustments. There might be new technologies. There might be some sectors that move on more quickly. Sectors are changing. It is a process of regular reporting.

The second one it shows is that we build the platform for science to have an interface with policy to discuss for the best option and that we have broad participation of industry and of the civil society in order to be building that. In the end, it is not something that we at the Environment Ministry are doing, but it is something that the whole of the government is building. It is a regular cycle of five yearly improvements. It is a great learning process and an update every five years.

Of the key features, we have not fixed just one exact percentage point. We call it “almost greenhouse gas neutral” but there is a corridor behind it. We believe in the Environment Ministry that 95 percent is the minimum. We don’t want to have a debate on that now. We first need to develop the instruments underpinning it. Otherwise, you just have sterile discussions on targets while in some sectors we do not see the solutions clearly how we build CO₂ free steel, how we produce CO₂ free cement and other materials, how we deal with the aluminum sector, and so on and so forth.

The big point is we work pretty well in making progress in the energy sector and the electricity sector, but not in all sectors. That is why we put targets on each and every

sector. Our reduction target for 2030 is minus 55 percent compared to the 1990 level. Basically, it is less than half of the emissions we put to the atmosphere in 1990, but with the steadily growing industry and economy. The energy sector and the building sector have to deliver more than 60 percent, so above the 55 percent threshold. The transport sector's reduction target is only 40 percent. But probably the 40 percent is the hardest. Each sector has to contribute.

Through insulation and through using renewable energies in the building and the heating sector, you can do a lot. The lowest is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probably the challenge is the biggest only next to the transport sector.



Sector targets in the Climate Action Plan 2050

Field of action	1990 (in million tonnes of CO ₂ equivalents)	2014 (in million tonnes of CO ₂ equivalents)	2030 (in million tonnes of CO ₂ equivalents)	2030 (reduction in % compared to 1990)
Energy sector	466	358	175-183	62-61 %
Buildings	209	119	70-72	67-66 %
Transport	163	160	95-98	42-40 %
Industry	283	181	140-143	51-49 %
Agriculture	88	72	58-61	34-31 %
Subtotal	1209	890	538-557	56-54 %
Other	39	12	5	87 %
Total	1248	902	543-562	56-55 %

On the governance, yes, we are in charge. But the next step we need to look at is the concrete plans as to what the underpinning measures are. Is it self-pressure? Is it regulating the car sector that is selling strict limit values on the CO₂ output of cars? Is it in agriculture that you have methane reducing further? There are many things.

But the main responsibilities for designing the first plans lie with the line ministries. The transport ministry is primarily responsible to reach the minus 40 percent target. The energy ministry is responsible for reducing the CO₂ content of the energy mix by 60 percent. They have to do that and they have to do impact assessments. They have to communicate with all stakeholders and then they deliver it to us. We the Environment Ministry are in charge of designing the overall strategy defining the cross-sectoral links. We are charged, together with the Finance Ministry, to set in the financial framework right. In the end, it will be all knit together and put to the Chancellor and the whole of the government for decision.

We will be putting all of the reduction targets in a legal context. This government is committed to have that all enshrined in the climate change law next year. Basically, it means that we will shift from something which has been seen as politically binding but not legally binding into a binding law.

The interesting part is that the Paris agreement and that process of Germany changed the view of industry. Our federation of industry, BDI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is normally not the most progressive force on climate change. But they thought if the Chancellor of the German government thinks that is the way ahead and the Paris agreement told so, they should do something about it.

They themselves undertook a huge process for 18 months and they asked themselves the questions of what it takes for them to reduce by 80 percent of all emissions and what it takes to reduce by 95 percent.

They basically said that according to their projections reduction by 60 percent is already within their current policies because they think the future will be low carbon just by other pressures. 80 percent could be done nationally.

But for 95 percent the competitive issues with industries in other countries come out. We need a much bigger level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therwise, if the German industries only undertake that, they would be disadvantaged on the competitive level. The agricultural federation of farmers did something similar. In the transport sector we have that as well.

I am not saying that their study shows us the way and my study shows us the way. But all the think tanks are thinking about the possible futures of low carbon nowadays. The new coalition agreement confirmed our ambitious targets. We will design a climate action act to be adopted in 2019. We will make everything legally binding.

What are the big debates we are having in Germany right now? The iconic issue where all NGOs and our European neighbor President Macron are asking us to move quickly is for Germany to move out of coal. The current electricity

mix basically has around 40 percent of hard coal, 10 percent of nuclear, 36 percent of renewable, and a little bit of gas. We have the target of 65 percent for renewable electricity in 2030. Two-thirds of our electricity in 2030 will be coming from intermittent renewable energy sources.

Countries like Korea and Germany which want to have heavy industry cannot afford any blackout; therefore, we increase the security of our system on a yearly basis. Germany is a country which is heavily interlinked with its European neighbors.



EU climate and energy framework 2030

EU is committed to reducing emissions by at least 40% until 2030.

	GHG emissions reduction (compared to 1990)	Share of renewables in final energy mix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2050	– 80-95 %		
2030	at least – 40 %	32% (tbc)	32.5% (tbc)
2020	– 20 %	20 %	20 %

- Foundation for INDC submitted in March 2015 before COP21 and ratification in September 2016
- Long-term: Greenhouse gas neutrality as early as possible – will soon be defined in more detail in a new EU climate strategy

We have already built a new system of renewable energies. In Berlin where I live power grid operator has more than 50 percent on annual average of electricity in his grid which comes from intermittent renewable. The technicians told us 10 years ago that more than 5 percent would endanger the stability of grid. That’s simply not true in the modern

digitalized world any more. Because you interact with other systems and you build energy systems much more intelligently. That is the link for Industrie 4.0 where we think the future intelligent world of how we produce and how we connect. It is already happening in this sector.

On the other hand, old depreciated coal-fired power plants are very cheap. When we started to move out of nuclear, I think the perception outside Germany was: “Oh, now they import nuclear electricity from France.” Just the opposite was the case. We export 60 terabyte hours of electricity per annum to our neighbors. Yes, there are times when we import nuclear electricity because you don’t see whether it is a renewable neutron or a nuclear neutron once it is in the grid.

We enlarge our exports. Why? Coal is cheap and renewable energies are blossoming. So we have huge overcapacities in the markets. In terms of the merit order of running a power plant, the first one is renewable energies. Once you have installed the insulation, the marginal cost is close to zero of renewable. But the second is coal. The problem we have nowadays is coal is banning gas to serve its time. We have to shift that.

There is a commitment to reduce coal-fired power plants by 60 percent by 2030 and to define an end date. As it is, it is a big discussion on our economy. There are two regions dependent on that. We have set up just this week

a commission of industry, regions and then trade unions, business and civil society which by the end of the year should deliver suggestions on how to do that.

But as I said, the mandate is clear. They need to say when to end coal-fired power and when to meet the target by 2030 which means reducing coal energy by 60 percent. We are pretty happy. We set up two similar commissions – one from the transport sector and the other from the building sector – with the same design. They are expected to deliver results by the end of the year.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need to decide the results. But I think they would come up with something that meets consensus and we will be closely sticking to that one.

For me the results are not shared by all. But that is what the issue is. It is their view on how best to do it. They had 68 different industry sectors and more than 600 individuals participated. They had working groups and they were discussing. I have been discussing with CEOs then in Berlin. It was not a unified room. Some just saw the chances and others had fears.

But it was a process that they were able to have a participatory process where all the members were coming up with such a big study. They were helped by the Boston Consultancy Group and Prognos. 61% is the current policy path already. There is a large trend thought on decarbonization even if some societies are resistant. You see

that depreciated investments live longer than they thought. They said the 80 percent target is feasible. The 95 percent level will push the boundaries. Then current social acceptance comes up.

That is the issue we have in our Coal Commission as well. We are talking about what we call “just transition” and some institutionalization which is an economic trend. If we don’t do clever regulation, probably those who are apt and capable are getting more opportunities and those who are not that apt will have fewer opportunities. Framing it politically is important, so you don’t have too big societal imbalances. It is one of the big issues.

We don’t know yet exactly what the game changers will be. We think that the electricity system will be largely electric because you don’t have to shift between fuels. But we think that liquid, gases and fuels will be needed for some sectors like shipping, air transport, long haul freight transport, and others. There are huge opportunities involved in Africa, Qatar, and Saudi Arabia in producing them and probably at lower costs.

We don’t know exactly how to produce it yet even though the Swiss are building the first CO₂ free power plant. But they are using renewable energies and hydrogen for the process of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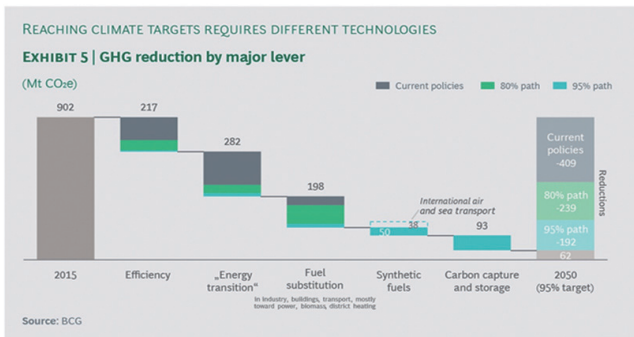
There are BDI climate paths. Basically, what the industry

themselves find is: “Yes, we need to invest in R&D; we need to spur modernization; and we need to make our people fit for modernization which goes back to the research and the apprentice and training programs. But they also see a big market for green products export.

At least in the 95% path, they think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plays a role and also for Germany. We don’t have that much storage capacity. It is something which is very attractive for us in the energy production sector. But we will need it for our heavy industries.



BDI: “Climate Paths Germany” (5)



The last point is “what is it about Europe?” In Europe, you see we have the same targets as Germany. That is a little bit difficult on the 2030 targets because the first one, the 80-95% levels, is compared to the 1990 levels and the other figures are compared to the 2005 levels. Basically, what you see is 40% which is around 54% compared to the 1999 levels.

We decided on these figures to be confirmed just on Wednesday last week (June 20). That day there was a deal signed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mmission and the Council. We say that it is the result. You will see slightly later that the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uncil were less ambitious, so the European Parliament was pushing us forward to becoming more ambitious.

We have basically two different baskets. We have a European-wide system for the whole heavy industries and big polluters. In this system we just now exercise that each and every year 2.2% less emissions can be coming out but industry can trade emissions amongst themselves.

The second one is the other sectors which are largely dominated by national legislation within Europe. And they need to become better 30% compared to the 2005 levels. The decisive part is that now since last Wednesday in Europe we get legally binding targets from the European Union. We have both in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TS) and in the other system a legal obligation to fulfill this target. If you don't fulfill it, you can buy quotas from other member states. If you fail to do that, we have the normal infringement procedure under the European law where there can be a sentence by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at we have to pay penalties.

For the non-ETS sector, we share our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our economic development. Richer countries have to do more. Luxembourg, Sweden, Finland, Denmark,

Germany, and France are those that have to do most, while countries like Bulgaria which is the poorest in the EU have to do less. There are figures against 2005. If you have figures like Bulgaria, they reduced their emissions by economic restructuring until 2005 by reducing the green house gas emissions by more than 30%. So the picture changes according to which baselines the countries are having. After the restructuring, the first phase was done. Now they are struggling to reduce at the same speed.

In closing, what is next? The European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s decided in March this year by the beginning of next year each member state should have a 2050 strategy which I have explained for Germany. The Paris agreement invites all countries to put that strategy forward by 2020. And I am very pleased to learn here that Korea will start producing its own strategy next year. And yesterday you announced an update of your 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We will be having a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Poland where we on the one hand need to decide on the fine prints, the so-called doable of the Paris agreement. Germany was hosting the so-called Petersberg Climate Dialogue together with Poland where we invited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including Korea just last week. Chancellor Merkel was there confirming like she was for the last eight years that the climate change policy is a Leaders' topic, not just something

for the reservoir of environment people.

The Talanoa dialogue means that we need to increase our ambition over time. Korea was working on the date and we are working on new legislation. With new legislation we will surpass our EU target and become stronger.

But it is not just climate change policies. We fail if we don't get other policy instruments in line. The two big issues within the EU we are discussing for the next seven years are about "what is our financial framework?" In the new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it will be lasting from 2020 to 2027. I think that is not a controversial law. 25% of all investments should be done in climate change activities. The more important is that the other 75% needs to undergo some test that is not counterproductive to climate change policies.

The European Commission just last month put forward a big set of proposals which will be becoming legally binding. To reduce increased judicial risk to financial institutions is to assess what financial risks there are due to climate change policies and to climate change. It is not that you have to do this or that. You just have to look into the matter of whether there are risks and how you build them into your portfolio. You have to be transparent to those who want to invest. So transparency plus judiciary risks are some things that you have to secure.

Of course, you have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In

agriculture, do you want to give incentives for intensive farming or is there another way to produce our food better, safer, healthier and more pro-climate?

My conclusion is that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 offer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business. Technological innovations are the key for energy transitions and pathways but they need to be supplemented by societal learning.

Transformation needs a robust policy framework which is to be continuously reviewed. We should not just have sticks but offer promotion schemes and incentives. In Europe and in Germany climate change policies will be legally binding. We in Germany are in a very intense discussion with our industries on how best to do that. Germany would love to cooperate with Korea about these issues because our societies and industries are pretty much alike.

If we want to win the future, we need to be better. Korea is an excellent partner in that.

The image features the letters 'QA' in a large, stylized font. The 'Q' is white with a subtle gradient and a drop shadow, while the 'A' is dark grey. They are set against a background of concentric, semi-transparent grey circles on a light grey background.

QA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Questions and Answers

Q I have participated in many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forums in the area of insurance for the past 10 years.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has been climate change because it impacts our business, especially life insurance, property, casualty and re-insurance. My question from the private sector would be two. How closely are you planning to work with the private sector? In policy formulation, does the private sector have a voice?

A The insurance sector is one of our biggest allies because it is looking into the risks of the future as well. That is its business model. I would argue the political model as well. Therefore, we are very much aligned in long term thinking which not all parts of our societies do. We very much rely on the data which the insurers including the Munich Re, the Swiss Re and others are evaluating and informing their clients by their insurance policies.

Yes, we are having a very close dialogue with industry. We have circles where we consult them but we are not consulting industry only but all parts of society such as trade unions and others. They are part of the commission I mentioned as well. They don't have decisive powers but they have the power to inform us.

That is part of it because we think that is necessary for two reasons. Without a clearcut business view, we are missing out on the opportunities and we want to support our businesses. It is also necessary for creating the necessary consensus

within society. For each of the steps for peer reviews and creating our action plans, we have consultation rounds with business. We encourage exercises like the one from the BDI. I did not have any money into that because business themselves could afford it. They were in my office for five hours before they started the whole process. They explained it, so I am not rushing them down later on. They gave me a mid-term inside and asked if we considered the questions the right ones. They were very interesting questions and some that I did not think about. Before they launched it, they gave me pre-screening. So it is a very intensive, most exciting process.


I would say more than 50 percent of businesses see there are vast opportunities. But some are afraid because this is challenging and different from the model they did business in the past. You can understand that. If you are a resource intensive industry, you have tough thoughts. Coal mining companies don't like me so much. That is what we need to do.



I was delighted to hear that Germany was able to export energy from time to time as well as import. It was interesting that you mentioned that Germany and Korea have a very similar industry mix in terms of a combination of heavy industries and technology industries. But one key difference is Germany has a plan B to fall back on neighbors' energy supply, particularly France, whereas South Korea is really like an island. So the energy has to be an autarchic

source. How do you suggest to Korea in terms of lessons learned from Germany and as a general matter what its long-term mix of energy source should be?

There is a raging debate in Korea about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 know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more of an alignment between green advocates and the nuclear industry. I guess that has to do with the vast geography of northern America. In Germany the debate is clearly decided in one way and in your neighbor France the debate is decided in the other way. How should Korea deal with that question of long-term energy mix, given that it is a de facto island country? How would you recommend the nuclear power should be in Korea?

 If you have intermittent energy sources, of course, you need to tackle the problem on what you do when these energy sources don't flow. We look with economic rationality. Building a grid which gives you a connection to your neighbors is the most cost-efficient opportunity. So that's why we legislate that for 10% of our production capacities we need to have interconnections with our neighboring countries and that should be raised to 15% in the year 2030. That is what is on the legislation right now. Because somewhere the wind is always blowing and the sun is shining, it is wise to do that.

The second one, there are very cheap economic potentials as well. If you have not only a flexible supply but also a flexible

demand, if you have a cool house and for many purposes and industry you give an economic signal that now energy costs less or nothing, they will take it. If it's high prices, they would refrain. If you just store certain goods with 28 degrees normally, it does not matter if it goes down to 26 or up to 32. You can store it just for days. You can react to economic signals when it is cheap. You can give incentives with smart metering to consumers when to use your washing machine. Even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re is a huge potential. That's number two.

Number three, you are just seeing in the field of storage the same developments as we see on solar TVs. So storage capacity is becoming cheaper through batteries, through solar storage and through all kinds of storage capacities. If you are in the field of electric mobility, you can use cars to store energy and to charge at a certain point.

But my recommendation is that there might be interests for political reasons and economic reasons to build interconnection into China, into Japan, and also to Russia where there are vast areas. The technology trend will make it possible for an island country. But I recognize it is more difficult.

On the energy mix question, I don't give advice. In Germany for three decades we had a very divided opinion. The majority of Germans found the risk of nuclear energy too high. You see that nowadays nuclear energy is not price competitive

in Europe. It is more expensive. You see it in Hinkley Point in the UK. They have just guaranteed prices in order for the investment to happen which is well above the renewable feed in tariffs we saw. We see that the French nuclear power company EDF is running close to bankruptcy. We see that the nuclear plants building in Finland are not cost competitive. So it's not there. The nuclear built in the past and in operation now is a different story.

But for newly built, you don't find private investors to do that. The only investment in nuclear which is happening in Europe right now is where the state takes a guarantee. So if you see how our modern technology is developing the way we interact, it will not be there. It will be interconnected but smaller production capacities for economic reasons.

How long you let your reactors run is your decision. It's the question on how long you depend on centralized produced power. We need that as well. We need to build frameworks for the intermediate from now to 2050 for a few new gas fired power stations in central nodes in our grid to stabilize. It is most cost competitive. It is a problem for us that so far it has not been economically viable for investors, so this thinking is just changing.

The energy production is simple. Providing services to stabilize the grid and to provide energy at the time when it is needed is where the economic value lies. That is why those who provide flexibility are making money. Where our two big

energy companies make profits is more on energy services. So it is services, not the sheer production anymore.

Comment: On top of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policy incentives, I think forming a social and national consensus is the most important, especially from looking a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the public opinion is quite divided on the energy policy.

Q You have told us how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industry contribute to the climate change situation. One of them is waste management and waste avoidance. Korea has a huge amount of plastic in retail and everywhere. Is there any message to be learned from Germany?

A Plastic is probably one of the issues placed highest on the agenda of G7 and G20. If you just look at statistics, there will be more plastics in oceans in 2050 than any marine mammals and fish. It is frightening. Some of the mangroves is spoiled by plastic waste. That per se is not an argument against plastic. But if you have a well-functioning system of collection of waste, it might help.

I think our societies need to reflect on how to make better use of materials and hope to become more responsible. Therefore, in Europe we are banning plastic bags now. Of course, it is a smaller part of that. But it is a very important awareness raising. You need to think about the product design and we should give economic incentives to produce

goods with a longer life time than just plastic bags.

But if you produce plastic, we need to reuse the product and we need to recycle it. We need to have a right strategy. If you go to Jakarta or Lagos, countries like Korea can see how clean your cities are. The monsoon and the floods are coming and then unauthorized waste is flushed to the rivers and then to the sea. They don't have a culture. So you need technological solutions, plus awareness raising and regulation. You have lots of win-win situations on that.

I understand that the waste collection system is functioning well in your country. I am informed that you are doing quite a lot on incineration. I think there are elements where you can just upcycle or recycle the full material value where all our societies could get better.

There are lessons to be learned. In the end, you need to get incentives for the consumer to return the waste and to use it at the least. You call it a cradle-to-grave principle that we put responsibilities on those marketers.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lifetime.

That tells you a story about Jakarta. They are frightened that their municipalities will be overloaded if I discuss with them on waste policy. Then I say, "Well, Indonesia should pass a law which clearly spells ou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waste lies with the company, the private entity which markets it. If you have that, then they have to build

companies to collect the waste and to do the waste treatment properly afterwards.” If you speak to politicians in Africa or Indonesia, they are all disgusted how wasteful their countryside is looking like. Then it is pretty easy to introduce that and create local jobs for waste collection. You build up systems. So there are economic opportunities if you do it right.

Q You said in your presentation that the climate change policy makes not just economic sense but also business sense. Could you give a specific example of a well-known manufacturing company that has adopted the climate policy that is now making more profits as a result? With Trump’s decision to withdraw from the Paris accord, will that affect negatively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well as our efforts to achieve the climate targets?

A I will give you three specific business cases. The first one is an online retail services company. It was a catalogue retail services company earlier on. It is the Otto Group in Germany which has been for ages putting sustainability at the heart. A German billionaire Mr. Otto has a foundation on that issue as well. It has been a very profitable for the last 4-5 decades and put sustainability at the heart because it is a family run business with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 sustainability and to future generations. It is not just a stock-based company where through the design of our systems short-term profits are very much what is

demanded from managers.

Second, our international delivery giant, DHL, formerly known as Deutsche Post. Because the German car manufacturers were incapable of building electric cars, they asked our well-known University of Aachen to build an electric delivery car for the last mile and they are just out there. If other companies want to buy it, they have to wait for three years because it is a relatively small production facility. It is very successful because they just designed to the needs for delivering the last 5 to 10 miles.

The third are technology companies like Bosch and Siemens and smaller companies which deliver components of solar cells which are now mainly produced in China. There are lots of high tech components and lots of companies are making huge business case out of that one.

On Trump, it has two directions. It places insecurity in our world of politics and our global diplomacy. People who knew already that it was coming are thinking about what it means that the US is pulling out. The elected President and the elected government is pulling out.

But many US businesses and many US states put more emphasis on climate policy. I would argue that we have had a long and deep friendship with the US. The US is more than just the President. It is something which gives additional difficulty. 19 out of 20 G20 countries are strongly committed

to the Paris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is a system which respects national differences but at the same time still argues for coordination, cooperation and consolidation. I think it is a very attractive scheme because it does try to bring a system to the one-size-fits-all national diplomacy.



세계경제연구원 출간물 및
특별강연 시리즈 목록

IGE Publications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Title	Author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Title	Author
94-01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Title	Author
95-01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95-02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3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4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5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6	US Trade Tension with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7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Japan's Perspective	Hisao Kanamori

1996

	Title	Author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al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4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05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1997

	Title	Author
97-01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Wendy Dobson
97-02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3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1998

	Title	Author
98-01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8-02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8-03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8-04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8-05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1999

	Title	Author
99-01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Marcus Noland
99-02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 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Title	Author
99-03	Prospec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Asian Economies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2000

	Title	Author
00-01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00-02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Global Trend in Financial Supervision	YongKeun Lee
00-04	Asia Grows, Japan Slows: Prospects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ourtis
00-05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6	Prospects for Millen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InBeom Choi
00-07	Prospects for the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Avoiding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00-11	Korea and the US: Partners in Prosperity and Security	Stephen W. Bosworth
00-12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 and Financ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Youngkeun Lee
00-14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2001

	Title	Author
01-01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ourtis
01-02	The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Title	Author
01-03	Overcoming 3Cs	Jeffrey D. Jones
01-04	High Tech, The Consequences for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The Status of Korea's Restructuring: An Outlook over the Next 10 Years	Dominic Barton
01-07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nald McKinnon
01-08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	Pierre Jacquet

2002

	Title	Author
02-01	Managing Capital Inflows: The Chilean Experience	Carlos Massad
02-02	Globalization and Korea: Opportunities and Backlash and Challenges	Martin Wolf
02-03	The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02-04	US Global Recovery: For Real? -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	Francis Fukuyama
02-07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8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d Asia	Kenneth S. Courtis
02-09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An Outlook for the World Economy	Marcus Noland
02-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11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12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02-13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4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5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Title	Author
03-01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Korea in the OECD Family	Donald Johnston
03-03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The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6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03-07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2004

	Title	Author
04-01	General Outlook on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5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6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US Trade Policy after the 2004 US Election	Peter F. Cowhey
05-02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Dominic Barton
05-03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Market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4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5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6	Mutual Interdependence: Asia and the World Economy	Anne O. Krueger

	Title	Author
05-07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Global Economy	Wendy Dobson
05-08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East Asia and Asia-Pacific	Robert Scollay
05-09	Moody's Perspective on Korea's Ratings	Thomas Byrne

2006

	Title	Author
06-01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06-02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3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4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5	Japan's Economic Recovery: Implications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6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obert F. Bruner
06-07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8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09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and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Whither China? -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Title	Author
07-01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7-02	Germany: Understanding for the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7-03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4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7-05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7-06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Title	Author
07-07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07-08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10	Moving Forward on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11	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12	-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 Guy Sorman - Tarun Das

2008

	Title	Author
08-01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08-02	The US "Risk" to Asia and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3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s	Atsushi Saito
08-06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Title	Author
09-01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09-02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09-04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6	-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Obama, Can It Work? -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Title	Author
10-01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10-02	Aftermath of the 'Crise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3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4	-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 Asia in the Global Economy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Title	Author
11-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1-02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3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Title	Author
11-04	Reshaping the Global Financial Landscape: An Asian Perspecti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1-05	-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 Europe's Financial Woes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Title	Author
12-01	US and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 Nam Pyo Suh - Hans Martens
12-03	-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Title	Author
13-01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13-02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 David Hale - Hugh Patrick/ Gerald Curtis

	Title	Author
13-05	-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 Abenomics, Future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13-07	- The Outlook for Japan under Abenomics and Abenationalism - After the Pax Americana (Korea-China-Japan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 Whither to?)	- David Asher - David Filling

2014

	Title	Author
14-01	U.S. and Global Economics-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elstand Economy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The Eurozone Economy: Out of the Doldrums? - The Global Economy 2014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5	-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 From BRICs to America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Chin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 Bob Davis
	-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 Anoop Singh
	- China's New Economic Strategies and the Korea-China FTA	- Zhang Yunling

2015

	Title	Author
15-01	-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 Allen Sinai
15-02	-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 Jeroen Dijsselbloem
	-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 Mark W. Lippert
	-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 Peter Hartz
15-03	- What Makes China Grow?	- Lawrence Lau
	-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 Guy Sorman

	Title	Author
15-04	-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 Germany's Industry 4.0: Harn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 Thomas Byme - Huang Haizhou

2016

	Title	Author
16-01	-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 Allen Sinai
16-02	-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16-04	-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Charles Dallara - Mark Lippert

2017

	Title	Author
17-01	-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 Allen Sinai
17-02	-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 Martin Feldstein - Jonathan Woetzel
17-03	-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 Gerald Curtis & Hugh Paztrick - Thomas Wieser
17-04	- The Future of Work: Is This Time Different?	- Carl Benedikt Frey

	Title	Author
17-05	- The Future of Growth - The Current State of US Economy and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US FTA Revision	- Simon Baptist -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Title	Author
18-01	- Dr. Martin Feldstein's Analysi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 U.S. and Global Prospects Looking Ahead	- Martin Feldstein - Allen Sinai
18-02	- US Protectionism, China's Political Shift and Their Implications - Japan's Labor Reform and Future Korea-Japan Cooperation	- Kenneth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Charles Freeman - Guy Sorman
18-04	-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 Eisuke Sakakibara - Karsten Sach

Proceedings and Reports

	Title	Author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Il SaKong
94-02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US Cooperation	Il SaKong/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5-03	Korea-US Cooperation in the New World Order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6-02	Korea-US Relations in the Globalization Era	Il SaKong/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6-04	Is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in a Trap and Can It Get Out?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Il SaKong
97-02	Financial Reform in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8-02	Korean Unification and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Korea-US Relationship	Il SaKong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Il SaKong/ KwangSeok Kim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Il SaKong/ KwangSeok Kim
99-01	Asian Financial Crisis: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Il SaKong/ Young Hun Koo
99-02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Korea-US Rela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Il SaKong/ Yunjong Wang
00-02	Northeast Asia Forum 2000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00-03	Proceedings of the Sixth Korea-US 21st Century Council Meeting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1	Building Constituencies for a Global Liberal Trade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EG Seoul Report)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2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3	The New World Order and Korea [III]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3-04	IGE's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4-01	How to Facilitate Business Start-up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8-01	Globalization and Korean Financial Sector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09-01	Lessons from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and Kore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1	G20 Reform Initiative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Financial Regulation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0-02	G20 Seoul Summit and Development Agenda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1	New Global Financial Regulatory Regime in the Making: Impact on Asia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2	Culture, Korean Economy and the Korean Wav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2-03	Asia in the New Global Financial Scen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1	Fostering Hidden Champions: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2	Unification and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3-03	The 20-Year Report of Activ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4-01	Leadership & Policy Priorities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Title	Author
15-01	Women and Growth Potential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17-01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IGE Brief+

2012

	Title	Author
12-01	Culture Industry, Service Trade and the Korean Economy	Chong-Hyun Nam
12-02	Korea-Japan Economic Integration: Trend and Prospect	Jongyun Lee
12-03	The Eurozone Crisis and Challenges for Korea	Jung-Taik Hyun
12-04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2012: Why Is It More Critical This Time?	Il SaKong
12-05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	JaeUng Lee
12-06	We Must Be Prepared for the Korean Unification	Il SaKong

2013

	Title	Author
13-01	New World Economic Order and Forward-looking Korea-Japan Relationship	Il SaKong
13-02	Financial Reform and China's Political Economy	Yoon-Je Cho

2014

	Title	Author
14-01	No Future for a Society that isn't Alarmed at Attacks against Police	Il SaKong
14-02	To Make the 3-Year Agenda for Economic Reform Successful	Il SaKong
14-03	Reinventing Korea for a Trustworthy Nation	Il SaKong
14-04	Reemergence of China: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l SaKong

2016

	Title	Author
16-01	Korea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and Surroundings	Il SaKong

Global Economic Horizons

1994

	Title	Author
94-01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94-02	Globalism vs. Regionalism	YoungSun Lee
94-03	Prospects for the Chinese Market	Wan-soon Kim
94-04	How to Prepare for the 21st Century	Paul Kennedy
94-05	Death of Money/Post Capitalist Society	GiTaek Hong/ HanGwang Joo
94-06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Yoo Jae Won
94-07	Environment and Trade	Seong-Lin Na/ Seungjin Kim
94-08	Structural Adjustment in Japan and the Korean Economy	JongYoon Lee
94-09	Chang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nd Options for Korea	Il SaKong
94-10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Korea's Economy and it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Il SaKong
95-02	Globalization and Competition Norm of the Enterprises	Wan-soon Kim
95-03	What is Globalization?	ByungJoo Kim
95-04	Korea and the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Will the World Economy Collapse?	ChukKyo Kim
95-06	Possibility of Continuously Strong Yen and Korea's Countermeasures	Jin-Geun Park
95-07	Globalization and the Korean Economy: Boom or Bubble?	BonHo Koo
95-08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Policy Measures	Chong-Hyun Nam
95-09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Korea-Japan Relations	WonTack Hong
95-10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s and its Efficiency	JongYoon Lee
95-11	Dilemma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JaeUng Lee

	Title	Author
95-12	Overview of the Post-Liberation Korean Economy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wangSeok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Will the Era for Medium-sized Firms Be Opened?	Dong-Gil Yoo
96-03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of Korea	MooGi Bae
96-04	Global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Businesses	Cheong Ji
96-05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in Korea	YoungCheol Park
96-06	Multilateralism vs. Regionalism: Can It Be Compatible?	SeWon Kim
96-07	Risks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Derivatives	SangKee Min
96-08	Recent Economic Crisis and Policy Measures	KwangSeok Kim
96-09	Economic Development, Policy Reform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etition Order	SeongSeob Lee
96-10	The Role of Government in Transition	ByeongJu Kim
96-11	New Agenda of the WTO	WanSoon Kim

1997

	Title	Author
97-01	How to Solve the Labor Law Revision?	SooGon Kim
97-02	Why a Low Economic Growth Rate is Desirable	ChukKyo Kim
97-03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JaeUng Lee
97-04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eokWoo Nam
97-05	A True Story of Company Growth: Lessons from the Hanbo Crisis	Cheong Ji
97-06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Collective Farming	PalYong Moon
97-07	Korea's Financial Sector Reform	KeSop Yun
97-08	An Aging Population and the Budget Crisis	Jong-Gi Park
97-09	Korea's Response Strategies Based on a General Model of Foreign Exchange Crisis	JinGeun Park
97-10	How to Open an Era of Ventures	Dong-Gil Yoo

1998

	Title	Author
98-01	Has Korea's Economic Miracle Ended?	Chong-Hyun Nam
98-02	The Impossibility of Overcoming a Crisis without a Grand Paradigm Shift	DaeHee Song
98-03	Corporate Restructuring and Desirable Relationships between Banks and Corporations	SangWoo Nam
98-04	A Search for New Corporate Governance and Roles of Outside Directors	Yeong-gi Lee
98-05	Suggestions for Breaking the Circle of High Investments and High Savings	YeongTak Lee

1999

	Title	Author
99-01	Prospects and Agenda for Pension Reform	Jong-Ki Park
99-02	The Subway Strike and Review of Issues Regarding Full Time Unionists	Soo-Gon Kim
99-03	Financial Restructuring and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JunGyeong Park
99-04	Environmental Policy Agenda for the 21st Century	Jong-Ki Kim
99-05	How to Deal with Income Distribution Problems in Korea	KwangSeok Kim
99-06	Fallacy and Reality in Productive Social Welfare System	Kwang Choi
99-07	Toward Closer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Il SaKong
99-08	WTO New Round - Recent Ministerial Meeting in Seattle and its Prospect	Tae-ho Bark

2000

	Title	Author
00-01	The Prospect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Korean Economy 2000	Joon-Kyung Kim
00-02	What Happened to the Debate on the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Il SaKong
00-03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Korea's Economic Future	Il SaKong
00-04	Revisit of High Cost with Low Efficiency	JongYun Lee
00-05	Is Asia's Recovery Sustainable?	Il SaKong

	Title	Author
00-06	The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nd Korean Economic Development	Yoon-Je Cho
00-07	The Role of International Investors in the Evolution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JaeUng Lee
00-08	US Restructuring Experience and Lessons	YeongSe Lee

2001

	Title	Author
01-01	A Perspective of Korean Industries and Strategi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DoHoon Kim
01-02	Reconsidering Working Five Days a Week	Young-bum Park

Research Reports (Global Economy Series)

1994

	Title	Author
94-01	The Task of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in the Post-UR Era and Policy Options for Korea	JaeWon Yoo
94-02	Current Discussions on Environment - Trade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	SeungJin Kim/ SeongRin Na
94-03	Japan's Structural Adjustments to a Strong Yen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JongYun Lee
94-04	Market Opening and Management Policy in Korea	JongSeok Kim

1995

	Title	Author
95-01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Its Current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HanGwang Joo/ SeungJin Kim
95-02	Receptivity of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JaeGyu Lee
95-03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egime and Korea's Strategy	JiHong Kim

1996

	Title	Author
96-01	The Domestic Futures Market: Its Planning and Prospects	Sun Lee
96-02	Japan's Industrial Network Organization and its Efficiency: A Case Study of the Automobile Industry	JongYun Lee

1997

	Title	Author
97-01	Romania's Economic Situation and Major Reform Issues	GwangSeok Kim/ ByeongJi Kim/ ILDong Koh

1998

	Title	Author
98-01	Sources of Korea's Economic Growth and Future Growth Potentials	KwangSeok Kim
98-02	Trade Patterns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heir Changes and Korea's Response	SeungJin Kim
98-03	The Global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WanSoon Kim/ NakGyun Choi
98-04	International Trends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Korea's Strategy	JongGuk Park

2000

	Title	Author
00-01	Financial Crisis and Industry Policy in Korea	YeongSe Lee / YongSeung Jeong

2001

	Title	Author
01-01	Korea's Industrial and Trade Policies: Their Evolution from 1961 to 1999	KwangSeok Kim
01-02	Technology Transfer and the Role of Information in Korea	YeongSe Lee

Special Lecture Series

1993

No.	Date	Title	Speaker
93-01	Feb 1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Mar 18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93-03	Apr 9	The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Outlook and Issues	Allen Sinai
93-04	Jun 22	Economic Outlook for the Pacific and Implications for Korea	Lawrence Krauss
93-05	Nov 4	Challenges of a Nomadic World	Jacques Attali

1994

No.	Date	Title	Speaker
94-01	Jan 5	Korea in the World: Today and Tomorrow	Paul Kennedy
94-02	Mar 22	US-Japan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A. Morse
94-03	Mar 25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Econom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Toyoo Gyohten
94-04	Apr 18	Changing US and World Economies and their Market Prospects	Allen Sinai
94-05	Jun 28	Prospects for East European Economy and Implications for Korea	Ronald Freeman
94-06	Sep 6	Prospects for New World Monetary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John Williamson
94-07	Oct 18	Prospects for New Trade Order and Implications for Korea	Arthur Dunkel
94-08	Dec 15	Financial Reform for the New Economy: Evaluations and Prospects	Jaeyoon Park

1995

No.	Date	Title	Speaker
95-01	Jan 26	Strategies for Globalization and Future Economic Policy	JaeHyong Hong
95-02	Jan 27	Mexican Peso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No.	Date	Title	Speaker
95-03	Mar 6	The World Economic Trend and US Economic Outlook	Allen Sinai
95-04	Mar 29	Korea and US: The Year 2000 in the Global Economy	James Laney
95-05	Apr 11	New Games, New Rules, and New Strategies	Lester Thurow
95-06	Apr 21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uture Prospects	Robert Scalapino
95-07	May 18	US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James A. Baker III
95-08	Jun 14	New World Trade Regime in the Post-UR Era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95-09	Jun 20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fter Mexico and Recent Currency Crisis	Stanley Fischer
95-10	Jul 19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New Challenges	Jagdish Bhagwati
95-11	Sep 1	Prospects for Northeast Asian Development and the Role of Korea	Hisao Kanamori
95-12	Oct 17	Russian Intelligence System: Past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Vadim Kirpitchenko
95-13	Oct 19	Trend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Allen Sinai
95-14	Nov 7	Current US Political Tren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US-Korea Relations	Thomas Foley
95-15	Nov 13	APEC and the Worl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 Fred Bergsten
95-16	Nov 28	International Monetary Regime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Toyoo Gyohten
95-17	Dec 6	WTO and the World Trading System - Where Do We Go from Here?	Anne O. Krueger

1996

No.	Date	Title	Speaker
96-01	Jan 25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Robert Lawrence
96-02	Feb 1	Trade Policies of the New Economy	Jaeyoon Park
96-03	Feb 26	Technology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ylvia Ostry
96-04	Mar 19	Information Era: Korea's Strategies	Sukchae Lee

No.	Date	Title	Speaker
96-05	Apr 9	Future European Model: Economic Internationalization and Culture Decentralization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Apr 23	Evolving Role of the OECD in the Global Economy	Donald Johnston
96-07	May 7	New Issues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ingapore and Beyond	Chulsu Kim
96-08	May 17	Financial Globalization and World Economy: Implications for Korea	Paul A. Volker
96-09	May 21	Cooperation or Conflict? - A European Perspective on East Asia's Place in the Global Economy	Martin Wolf
96-10	May 23	East Asia in Overdrive: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s	Wendy Dobson
96-11	May 28	Japan's Banking Difficulties: Causes and Implications	Hugh Patrick
96-12	Jun 29	The Political Context and Consequen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Francis Fukuyama
96-13	Jul 9	President Clinton's First Term and Prospects for a Second: Implications for Korea	Robert Warne
96-14	Sep 17	Global Free Trade: A Vision for the Early 21st Century	C. Fred Bergsten
96-15	Oct 22	Korea's New Global Responsibilities	A. W. Clausen
96-16	Nov 26	The Free Trade Area of Clinton's Second Term: Implications for APEC and Korea	Richard Feinberg

1997

No.	Date	Title	Speaker
97-01	Feb 25	Economic management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uckwoo Nam
97-02	Mar 18	German Unification: Economic Consequences and Policy Lessons	Juergen B. Donges
97-03	May 27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Asia Pacific- Three Crisis and How We Dealt With Them	William Perry
97-04	Jun 10	Global Cooperations and National Government: Why We Need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Edward Graham
97-05	Jul 8	Public Sector Reform in New Zealand and its Relevance to Korea	Donald Hunn

No.	Date	Title	Speaker
97-06	Sep 18	Korean-American Relations: The Search for Stability at a Time of Change	W. Anthony Lake
97-07	Oct 21	Korea: From Vortex to Hub of Northeast Asia	Donald P. Gregg
97-08	Dec 9	The Japanese Economic Slump and Currency Crises in Other East Asian Economies	Ronald McKinnon

1998

No.	Date	Title	Speaker
98-01	Jan 14	Globalization and versus Tribalization: The Dilemma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Guy Sorman
98-02	Feb 3	Asian Currency Turmoil and Japan's Role	Takatoshi Kato
98-03	Feb 5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Challenges Facing Korea: From An American Perspective	Charles Dallara
98-04	Apr 28	The Significance of the European Economic Monetary Union: in Europe and Beyond	Tue Rohsted
98-05	Jun 23	Asian Currency Crisis: What Has Happened?	Anne O. Krueger
98-06	Sep 17	How to Reform Public Sector Management	Nyum Jin
98-07	Dec 4	Economic Outlook for 1999: Asia and Korea	Hubert Neiss
98-08	Dec 11	North Korea in Global Perspective	Marcus Noland

1999

No.	Date	Title	Speaker
99-01	Feb 11	Korea in the World Economy: An OECD Appreciation of its Newest Member	Donald Johnston
99-02	Mar 5	Prospects for US Stock Exchanges and US Economy	Richard A. Grasso
99-03	Apr 6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US Dollar/Yen Exchange Rate: An Overview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Kenneth S. Courtis
99-04	May 19	Reflections on Contrasting Present-day US and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s	Hugh Patrick
99-05	Jul 22	Challenge for the World Economy: Where Do the Risks Lie?	Rudiger Dornbusch

No.	Date	Title	Speaker
99-06	Oct 5	How Should Korea Cope With Financial Globalization	James P. Rooney
99-07	Dec 2	Global Financial Market: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Robert Hormats
99-08	Dec 14	North Korea-US Relationship: Its Current Condition and Future Prospects	Stephen W. Bosworth

2000

No.	Date	Title	Speaker
00-01	Jan 19	The Outlook for Asia and Other Emerging Markets in 2000	Charles Dallara
00-02	Feb 15	Global New Econom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Korea	Soogil Young
00-03	Feb 29	Asia Grows, and Japan Slows- Prospect for the World Economy and Markets	Kenneth S. Courtis
00-04	Mar 28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Morris Goldstein
00-05	Apr 26	Policies toward Continued Corporate and Financial Reform	Youngkeun Lee
00-06	May 26	Prospects for Millenium Round Trade Negotiations an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effrey Schott
00-07	Jun 23	Prospects for Multilateral Economic Institutions	Anne O. Krueger
00-08	Jul 13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Marcus Noland
00-09	Sep 14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00-10	Nov 10	The Economic and Foreign Policies of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C. Fred Bergsten

2001

No.	Date	Title	Speaker
01-01	Feb 6	The US Economy on the Brink? Japan on the Edge? Implications for Asian and the World Economy	Kenneth S. Courtis
01-02	Feb 27	Economic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ward Korea	Marcus Noland
01-03	Apr 26	Jeffrey Jones' Evaluation of Korean Business and Economy: Overcoming Three 'C's	Jeffrey D. Jones

No.	Date	Title	Speaker
01-04	Jun 5	High Tech, The Consequences of our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on our Lives and Businesses	John Naisbitt
01-05	Jul 9	Korea and the IMF	Stanley Fischer
01-06	Jul 19	Outlook on Korea Over the Next Ten Years	Dominic Barton
01-07	Sep 4	The World Dollar Standard and the East Asian Exchange Rate Dilemma	Roland McKinnon
01-08	Oct 9	Europe's Role in Global Governance and Challenges to East Asia/Korea	Pierre Jacquet
01-09	Nov 6	Globalization and Dangers in the World Economy	Martin Wolf
01-10	Nov 16	Preventing Financial Crises: The Chilean Perspective	Carlos Massad
01-11	Nov 20	The New US-Japan Economic Relationship and Implications for Korea	Marcus Noland

2002

No.	Date	Title	Speaker
02-01	Jan 9	Globalization: A Force for Good	Patricia Hewitt
02-02	Jan 16	The World After 9/11: A Clash of Civilizations?	Francis Fukuyama
02-03	Feb 22	Hanging Together: On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in Asia	Barry Eichengreen
02-04	Apr 16	US and Global Recovery: For Real? Prospects and Risks	Allen Sinai
02-05	May 7	The Global Economy Rebounds - But How Fast and For How Long? Issu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enneth S. Courtis
02-06	Jun 14	The US Economy and the Future of the Dollar	Marcus Noland
02-07	Jul 10	The Doha Round: Objectives, Problems and Prospects	Jagdish Bhagwati
02-08	Sep 24	The Outlook for Korea and the Global Economy 2002-2003	Paul F. Gruenwald
02-09	Oct 11	The Outlook for US Economy, the Dollar and US Trade Policy	C. Fred Bergsten
02-10	Oct 22	9/11 and the US Approach to the Korean Peninsula	Thomas C. Hubbard
02-11	Oct 24	The US and World Economy: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John B. Taylor

No.	Date	Title	Speaker
02-12	Dec 3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Glob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ies	Peter F. Cowhey

2003

No.	Date	Title	Speaker
03-01	Apr 8	The US and World Economy: After the Iraq War	Allen Sinai
03-02	May 30	2003 Global Economy and Key Economic Issues: From the OECD's Perspectives	Donald Johnston
03-03	Jun 10	The New Role of the US in the Asia-Pacific	Charles Morrison
03-04	Jul 4	Global Economic Outlook and the Impact of President Bush's Economic Stimulus Package	Phil Gramm
03-05	Oct 28	The Global Exchange Rate Regime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urrencies	John Williamson
03-06	Nov 4	Europe and Germany in Transition, Where Will the Economies Go?	Hans Tietmeyer
03-07	Nov 21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Eisuke Sakakibara

2004

No.	Date	Title	Speaker
04-01	Feb 3	An Outlook for the US and World Economy in 2004	Allen Sinai
04-02	Apr 7	Korea After Kim Jong-il	Marcus Noland
04-03	Apr 21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s on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04-04	Jun 1	- The US Election, US-Japan Rel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US Economic Performance, Japanese Economic Performance, and Implications for Korea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Jul 13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04-06	Oct 14	The Case for a Common Currency in Asia	Robert Mundell
04-07	Nov 2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US Trade Policy	Peter F. Cowhey
04-08	Dec 7	Asia in Transition and Implication for Korea	Dominic Barton

2005

No.	Date	Title	Speaker
05-01	Jan 18	Post-Election US and Global Economies and Markets Prospects, Risks, and Issues	Allen Sinai
05-02	Mar 2	The Korean Economy: A Critical Assessment from the Japanese Perspective	Yukiko Fukagawa
05-03	Apr 12	A Rating Agency Perspective on Korea	Thomas Byrne
05-04	May 10	The Impact of China and India on the World Economy	Wendy Dobson
05-05	May 31	Visions of East Asian and Asian-Pacific Integration: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bert Scollay
05-06	Jun 30	Mutual Independence: Asia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Anne O. Krueger
05-07	Sep 1	The Blind Man and the Elephant: Competing Perspectives on Global Imbalances	Barry Eichengreen
05-08	Oct 13	Measuring American Power in Today's Complex World	Paul Kennedy
05-09	Oct 28	China "Rising": What Lessons for Today from the Past?	Bernard Gordon
05-10	Nov 15	Oil Prices, Ben Bernanke, Inflation, and the Fourth Energy Recession	Philip K. Verleger

2006

No.	Date	Title	Speaker
06-01	Jan 23	US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 Prospects: Picking up Steam	Allen Sinai
06-02	Feb 14	Korea-US FTA: A Path to Sustainable Growth	Alexander Vershbow
06-03	Mar 28	Japan's Economic Recovery: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Yukiko Fukagawa
06-04	Apr 18	The Global Scramble for IT Leadership: Winners and Losers	George Scalise
06-05	May 10	Korea's Growing Stature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6-06	Jun 20	Japan's Foreign Policy for Economy and Japan-Korea FTA	Oshima Shotaro
06-07	Jun 30	Whither China?	Richard N. Cooper
06-08	Jul 20	M&A in the 21st Century and its Implications	Rpbert F. Bruner

No.	Date	Title	Speaker
06-09	Sep 1	Korea and the US - Forging a Partnership for the Future: A View from Washington	Edwin J. Feulner
06-10	Sep 12	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Common Asian Currency	Eisuke Sakakibara
06-11	Sep 15	Germany: Understanding the Economic Underperformance since Reunification	Juergen B. Donges
06-12	Sep 21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ngel Gurría
06-13	Oct 12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n East Asian FTA: A Chinese Perspective	Zhang Yunling
06-14	Nov 9	The Global Oil and Gas Market: Paradigm Shift and Implications for Korea	Fereidun Fesharaki
06-15	Nov 29	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nne O. Krueger

2007

No.	Date	Title	Speaker
07-01	Jan 9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Allen Sinai
07-02	Feb 13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Prospects and Challenges	Yukiko Fukagawa
07-03	Mar 9	Digital Networked Economy and Global Corporate Strategy	Ben Verwaayen
07-04	May 3	The Outlook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Coping with American Protectionism, Chinese Power, and Japanese Recovery	David Hale
07-05	May 8	Key Trend in the 2008 US Presidential Campaign	Stephen J. Yates
07-06	May 11	Strengthening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Economy	Charles Dallara
07-07	Jun 21	Moving Forward the KORUS FTA: Now for the Hard Time	Jeffrey Schott
07-08	Aug 24	The Korea Economy an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Barry Eichengreen
07-09	Oct 4	Why the US Will Continue to Lead the 21st Century?	Guy Sorman
07-10	Oct 19	The Outlook of the Indian Economy from Business Perspective: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	Tarun Das

No.	Date	Title	Speaker
07-11	Oct 25	Globalization, Diversity and Recruitment of Business Talents	Ben Verwaayen
07-12	Nov 8	Economic Outlook for Korea and the Region	Jerald Schiff
07-13	Dec 14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Anne O. Krueger

2008

No.	Date	Title	Speaker
08-01	Jan 15	The US "Risk" to Asia and the Global Expansion	Allen Sinai
08-02	Mar 25	Sovereign Wealth Funds: Perceptions and Realities	Robert C. Pozen
08-03	May 14	Europe's Slow Growth: A Warning for Korea	Guy Sorman
08-04	May 30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 Baker III
08-05	Jun 10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Japanese Capital Market	Atsushi Saito
08-06	Jun 18	Economic and Political Outlook for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to the World	Phil Gramm
08-07	Sep 17	The Outlook of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Banking	Charles Dallara
08-08	Sep 23	Can South Korea Still Compete?	Guy Sorman
08-09	Oct 17	Global Financial Markets under Stress	Jeffrey Shafer
08-10	Nov 4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ollar, and the Price of Oil	Martin Feldstein
08-11	Dec 9	Glob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ct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Subir Lall

2009

No.	Date	Title	Speaker
09-01	Jan 13	Competing in an Era of Turbulence and Transition	Deborah Wince-Smith
09-02	Feb 3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Prospects, Policies, and Perspectives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09-03	Feb 24	Current Crisis and th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Danny Leipziger
09-04	Feb 25	US Trade Policy in the Obama Era	Jeffrey Schott
09-05	Mar 19	Obama, Can It Work?	Guy Sorman
09-06	Apr 15	Lessons from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nne O. Krueger
09-07	Jun 23	Beyond Keynesianism	Justin Yifu Lin
09-08	Jul 21	The US-Korea Economic Partnership: Working Together in a Time of Global Crisis	Jeffrey Schott
09-09	Aug 20	Prospects for Investment after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he Role of IFC and Developing Countries	Lars H. Thunell
09-10	Oct 15	Is a Double-Dip a Realistic Possibility?	SungWon Sohn
09-11	Dec 8	The EU in Transition in the New Global Paradigm: Opportunities for Korea?	Jean-Pierre Lehmann

2010

No.	Date	Title	Speaker
10-01	Jan 21	Aftermath of the 'Crisis': US and Global Prospects, Legacies, and Policies	Allen Sinai
10-02	Apr 8	Japan and Korea in Globalization and its Backlash: Challenges and Prospects	Yukiko Fukagawa
10-03	Apr 22	Emerging Markets and New Frontiers	Mark Mobius
10-04	May 18	An Overview of China: Economic Prospects and Challenges	Danny Leipziger
10-05	Jul 13	Asia in the Global Economy	Dominique Strauss-Kahn
10-06	Aug 31	The Global Economy: Where Do We Stand?	Anne O. Krueger
10-07	Oct 15	How Close Are We to a Double-Dip and Deflation?	SungWon Sohn
10-08	Nov 5	Rebalancing the World Economy	Paul A. Volcker

2011

No.	Date	Title	Speaker
11-01	Jan 20	After the Crisis: What Next in 2011 and 2012?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1-02	Feb 24	Economic Outlook and Future Challenges in Developing Asia	Haruhiko Kuroda
11-03	Mar 23	Europe's Financial Woes	Richard N. Cooper
11-04	Apr 28	Safety and Economics of Nuclear Power	SoonHeung Chang
11-05	May 24	Can the G20 Save Globalization and Multilateralism?	Danny Leipziger
11-06	Jun 29	Markets, Economic Changes, and Political Stability in North Korea	Marcus Noland
11-07	Aug 30	A Special Lecture on the Rebalancing of the Chinese Economy	Yu Yongding
11-08	Dec 31	Global Economic Turbulenc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SungWon Sohn

2012

No.	Date	Title	Speaker
12-01	Jan 19	US and Global Economy and Markets Turmoil: What Lies Ahead?	Allen Sinai
12-02	Mar 13	The US Elections in 2012 and the Future of US Asia-Pacific Policy	Charles Morrison
12-03	Jun 22	Advancement and Edu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and Economic Growth	NamPyo Suh
12-04	Jul 17	Prospects of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Hans Martens
12-05	Sep 14	Current Economic Affairs and the Financial Market	Charles Dallara
12-06	Sep 18	An Optimist View on the Global Economy	Guy Sorman
12-07	Oct 11	FTAs, Asia-Pacific Integration and Korea	Peter A. Petri
12-08	Oct 29	The Eurozone Crisis: Update and Outlook	Nicolas Veron
12-09	Nov 21	China's New Leadership and Economic Policy Challenges	Andrew Sheng
12-10	Dec 7	Can the WTO Be Resuscitated?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Pacific	Jean-Pierre Lehmann

2013

No.	Date	Title	Speaker
13-01	Jan 10	The US and Global Economies after the US Election and in the New Year	Allen Sinai

No.	Date	Title	Speaker
13-02	Jan 17	The Eurozone Crisis and it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Guntram B. Wolff
13-03	Feb 8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Challenges and How to Solve Them	Andreas Dombret
13-04	Mar 22	The Global Outlook: Grounds for Optimism, but Risks Remain Relevant	John Lipsky
13-05	Apr 3	The State and Outlook of the US and Chinese Economy	David Hale
13-06	Apr 9	Japan's Abenomics and Foreign Policy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Apr 30	The Creative Economy and Culture in Korea	Guy Sorman
13-08	May 21	The Japanese Economy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Jun 27	Unified Germany in Europe: An Economic Perspective	Karl-Heinz Paqué
13-10	Jul 19	Chinese Economic Policymaking: A Foreigner's Perspective	Bob Davis
13-11	Sep 27	Japanese Politics and Abenomics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World	David Asher
13-12	Nov 15	Korea-China-Japan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er to?	David Philling

2014

No.	Date	Title	Speaker
14-01	Jan 7	U.S. and Global Economies - Poised for Better Times?	Allen Sinai
14-02	Jan 14	Swiss Made	R. James Breiding
14-03	Feb 20	Abe in the Driver's Seat: Where is the Road Leading?	Gerald Curtis
14-04	Feb 26	The Secret of Germany's Performance: The Mittlestand Economy	Peter Friedrich
14-05	Mar 5	The Eurozone Economy: Out of Doldrums?	Karl-Heinz Paqué
14-06	Mar 17	The Global Economy 2014	Martin Feldstein
14-07	Apr 3	Philanthropy and Welfare	Guy Sorman
14-08	May 16	Global Trad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Roberto Azevedo
14-09	May 23	From BRICs to America	SungWon Sohn

No.	Date	Title	Speaker
14-10	Jul 24	Risks and Opportunities in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Charles Dallara
14-11	Sep 12	Abe's Labor Reform and Innovative Strategies	Yukiko Fukagawa
14-12	Sep 26	a's Economy and Anti-Corruption Drive	Bob Davis
14-13	Oct 17	US Fed's QE Ending & Asian Financial Markets	Anoop Singh
14-14	Nov 14	China's New Economic Strategy and the Korea-China FTA	Zhang Yunlingng

2015

No.	Date	Title	Speaker
15-01	Jan 15	The EU Economy in 2015: Will It Take Off?	Jeroen Dijsselbloem
15-02	Jan 20	Will the Global Economy Normalize in 2015?	Allen Sinai
15-03	Apr 24	What Makes China Grow?	Lawrence Lau
15-04	Apr 28	U.S.-Korea Economic Relations: Partnership for Shared Economic Prosperity	Mark W. Lippert
15-05	May 5	The Hartz Labor Reforms of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Peter Hartz
15-06	Jun 2	What can Korea Learn from Europe's Slow Growth?	Guy Sorman
15-07	Jul 9	Global 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and Switzerland	Doris Leuthard
15-08	Sep 11	The Emerging New Asian Economic Disorder	David L. Asher
15-09	Sep 21	The Chinese Economy: Transition towards the New Normal	Huang Yiping
15-10	Oct 13	Germany's Industry 4.0: Hamessing the Potential of Digitization	Matthias Machnig
15-11	Oct 29	Four Global Forces Changing the World	Dominic Barton
15-12	Nov 12	Turbulence in Emerging Markets and Impact on Korea	Sung-won Sohn
15-13	Nov 17	Observations on the Korean Economy and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Thomas Byrne
15-14	Dec 10	Perspectives on China's Economy and Economic Reform	Huang Haizhou
15-15	Dec 15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Growth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No.	Date	Title	Speaker
16-01	Jan 12	The U.S. and Global Prospects and Markets in 2016: A Look Ahead	Allen Sinai
16-02	Feb 23	The Key Themes and Risks of the Global Economy in 2016	Hung Tran
16-03	Mar 2	The U.S. in the Global Economy	Anne Krueger
16-04	May 16	The Prospects and Impact of the U.S. Election and Economy	Martin Feldstein
16-05	May 24	The US and Northeast Asia in a Turbulent Time	Gerald Curtis
16-06	Jun 1	Allies in Business: The Future of the U.S.-ROK Economic Relationship	Mark Lippert
16-07	Sep 20	How Ready Are W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oh-Yeon Kim
16-08	Oct 21	The World Economy at a Time of Monetary Experimentation and Political Fracture	Charles Dallara
16-09	Nov 10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Economic and Security Implications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Title	Author
17-01	Jan 19	Big Changes, Big Effects - U.S. and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Prospects 2017	Allen Sinai
17-02	Mar 13	The 2017 US and Global Macroeconomic Outlook	Martin Feldstein
17-03	Apr 13	Automation, Jobs and the Future of Work in Korea	Jonathan Woetzel
17-04	Jun 8	Trump's US, Japan's Economy and Korea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Jul 5	Between Brexit and Trump: Global Challenges for the European Union	Thomas Wieser
17-06	Sep 11	Future of Growth	Simon Baptist
17-07	Oct 19	The Future of Work: Is This Time Different?	Carl Benedikt Frey
17-08	Nov 7	The Current State of US Economy and Trump Administration's Trade Polic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US FTA Revision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Title	Author
18-01	Jan 9	U.S. and Global Prospects Looking Ahead	Allen Sinai
18-02	Mar 13	US Protectionism, China's Political Shift and Their Implications Japan's Labor Reform and Future Korea-Japan Cooperation	Ken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Mar 20	Dr. Martin Feldstein's Analysis of the US and Global Economy	Martin Feldstein
18-04	Apr 11	U.S. Economic and Trade Policy for Korea and Asia	Charles Freeman
18-05	Apr 17	How Europeans See China, Changing World Order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Guy Sorman
18-06	May 15	Asia's New Economic Landscape: India, Japan and China	Eisuke Sakakibara
18-07	Jun 29	Climate, Energy and Green Tech: Transforming Our Economies	Karsten Sach

Specialist's Diagnosis**2004**

		Title	Author
04-01		A Critical Assessment of Korea's FTA Policy	Chong-hyun Nam
04-02		A Foreign Businessman's Observa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Other Things	William C. Oberlin

2005

		Title	Author
05-01		Korea in the World Economy: Challenges and Prospects	Il SaKong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Occasional Paper Series

1993

연 번	제 목	저 자
93-01	Clintonomics and the New World Order: Implications for Korea-US Relations	C. Fred Bergsten
93-02	The Uruguay Round, NAFTA, and US-Korea Economic Relations	Jeffrey Schott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6	The Promises of the WTO for the Trading Community	Arthur Dunkel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2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3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4	미국 · 북한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5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6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7	동북아경제권 개발 전망: 일본의 시각	Hisao Kanamori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Trends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Prospects of Global Economy in 1996	Allen Sinai
96-02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3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4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연 번	제 목	저 자
96-0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7-02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J. Perry
97-03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M. Graham
98-02	변화 속의 안정: 새로운 한미 관계의 모색	W. Anthony Lake
98-03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8-04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일 통일의 교훈	Juergen B. Donges
98-05	세계화와 종족화: 20세기 말의 딜레마	Guy Sorman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과 동북아 안보	Marcus Noland
99-02	엔-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	Kenneth S. Courtis
99-03	한국과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대응	Donald Johnston/ Hubert Neiss
99-04	미국과 일본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미관계: 변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	이용근
00-04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5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6	시애틀 이후의 WTO와 한미FTA전망	Jeffrey Schott/ 최인범
00-07	다자간 국제경제기구의 미래와 전망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연 번	제 목	저 자
00-09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대외·경제정책방향	C. Fred Bergsten
00-11	한미관계: 번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00-12	2000년 국제금융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Robert Hormats
00-13	기업·금융 관계: 현황과 전망	이용근
00-14	금융세계화, 어떻게 대처하나	James P. Rooney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2001년 미국, 일본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 경제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2002

연 번	제 목	저 자
02-01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만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2-02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험	Martin Wolf
02-03	美·日 경제현황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6	9·11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7	아시아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8	세계경제, 회복되나?	Kenneth S. Courtis
02-09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10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11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 Gruenwald
02-12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3	9·11사태와 미국의 한반도정책	Thomas C. Hubbard
02-14	미국 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5	미국의 IT산업 관련 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저 자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OECD가 본 한국경제	Donald Johnston
03-03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침체된 독일 · 유럽 경제가 주는 정책적 교훈과 시사	Hans Tietmeyer
03-06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03-07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20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미국 대통령 선거와 韓 · 美 · 日관계	Hugh Patrick/ Gerald Curti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5	아시아 화폐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6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5-02	아시아 경제 · 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05-03	제2기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4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5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Wendy Dobson
05-08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9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2006

연 번	제 목	저 자
06-01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06-02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연 번	제 목	저 자
06-03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4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06-05	일본경제 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6	세계 M&A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7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8	아시아 공통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09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하며,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Paul Kennedy/ Bernard Gordon
06-10	- 20년 후의 중국, 어떤 모습일까? -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 Richard N. Cooper - George Scalise

2007

연 번	제 목	저 자
07-01	한미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7-02	통일 이후 독일: 경제체제의 교훈	Juergen B. Donges
07-03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4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7-05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7-06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7-07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07-08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9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 전략	Ben Verwaayen
07-10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11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12	- 동아시아 경제통합, 어떻게 보나 - 한국경제 및 동아시아경제 전망	- David Hale - Jerald Schiff
07-13	-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 기업	- Guy Sorman - Tarun Das

2008

연 번	제 목	저 자
08-01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08-02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 대통령이 풀어야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연 번	제 목	저 자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전망	Charles Dallara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 국부펀드: 인식과 현실 -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 Robert C. Pozen - Jeffrey R. Shafer

2009

연 번	제 목	저 자
09-01	20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 경제 전망	Subir Lall
09-02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3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 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 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6	-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대응 -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교훈과 전망	- Danny Leipziger - Anne O. Krueger
09-07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 한미 경제 파트너십: 세계적 위기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 Guy Sorman - Jeffrey Schott

2010

연 번	제 목	저 자
10-01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10-02	위기 이후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 과제	Allen Sinai
10-03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4	-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 중국 경제의 虛와 實	- Yukiko Fukagawa - Danny Leipziger
10-05	-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런티어 -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 Mark Mobius -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저 자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3	중국 경제의 재(再)균형	Yu Yongding
11-04	세계금융질서의 개편: 아시아의 시각	세계경제연구원
11-05	-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 유럽의 국가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 Haruhiko Kuroda - Richard N. Cooper
11-06	- 기로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 Danny Leipziger - Marcus Noland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혼돈 속의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분석과 2012년 전망	Allen Sinai
12-02	- 카이스트의 혁신 - 유로위기 해결책은 없나	- 서남표 - Hans Martens
12-03	- 20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정책 전망 -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 Charles Morrison - Charles Dallara - Guy Sorman
12-04	- FTA와 아태지역 통합 그리고 한국 - 유로위기 언제 끝나나?	- Peter A. Petri - Nicolas Véron
12-05	-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 Andrew Sheng -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 Andreas Dombret - John Lipsky
13-04	-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 David Hale - Hugh Patrick/Gerald Curtis
13-05	-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 Guy Sorman -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6	-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 Karl-Heinz Paqué - Bob Davis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경제의 비결	- Gerald Curtis - Peter Friedrich
14-03	-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 2014년 세계 경제의 방향은?	- Karl-Heinz Paqué - Martin Feldstein
14-04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5	- 세계무역 환경과 세계경제의 미래 -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 Roberto Azevêdo - Sung Won Sohn
14-06	- 세계경제 회복, 위기가 기회인가 - 아베 정권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 Charles Dallara - Yukiko Fukagawa
14-07	-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 다카올 미 연준의 QE종료가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 중국의 신경제 전략과 한-중 FTA	- Bob Davis - Anoop Singh -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저 자
15-01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2	-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Jeroen Dijsselbloem - Mark W. Lippert - Peter Hartz
15-03	-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Lawrence Lau - Guy Sorman
15-04	- 글로벌 에너지(중점)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 H.E. Doris Leuthard - David L. Asher
15-05	-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 Huang Yiping - Matthias Machnig
15-06	-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 Dominic Barton - Sung-won Sohn
15-07	-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 Thomas Byrne - Huang Haizhou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Allen Sinai
16-02	-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 미국의 경제 · 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Hung Tran - Anne Krueger
16-03	-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 Martin Feldstein - Gerald Curtis

연 번	제 목	저 자
16-04	-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 Marcus Noland & Sung-won Sohn - Charles Dallara - Mark Lippert

2017

연 번	제 목	저 자
17-01	-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 Allen Sinai
17-02	-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 Martin Feldstein - Jonathan Woetzel
17-03	-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 Thomas Wieser
17-04	-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	- Carl Benedikt Frey
17-05	-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기술의 역할 -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 FTA 개정	- Simon Baptist -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연 번	제 목	저 자
18-01	-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경제 - 2018년 미국과 세계 경제 · 금융 전망	- Martin Feldstein - Allen Sinai
18-02	- 미국 보호주의와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함의 - 일본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	- Kenneth Courtis - Yukiko Fukagawa
18-03	-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 · 경제 정책 -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	- Charles Freeman - Guy Sorman
18-04	-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Eisuke Sakakibara - Karsten Sach

보고서 (책자)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The Global Economy and Korea	사공 일
94-02	탈냉전시대 韓美 정치·경제 협력 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5-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	세계경제연구원
95-02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	세계경제연구원
95-03	새로운 韓美 협력체제의 모색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1	The Multilateral Trading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6-02	세계화시대의 韓·美관계	사공 일/ C. Fred Bergsten
96-03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II]	세계경제연구원
96-04	세계 반도체산업의 발전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계경제연구원
97-01	Major Issues for the Global Trade and Financial System	사공 일
97-02	한국의 금융개혁	세계경제연구원
98-01	International Next Generation Leaders' Forum [IV]	세계경제연구원
98-02	한반도 통일 및 韓美관계의 현황과 과제	사공 일
98-03	Policy Priorities for the Unified Korean Economy	사공 일/김광석
98-04	The Fifty Years of the GATT/WTO: Past Performance and Future Challenges	사공 일/김광석
99-01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	사공 일/구영훈
99-02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미 관계	세계경제연구원
99-03	For A Better Tomorrow: Asia-Europe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ASEM Vision Group
00-0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	사공 일/왕윤중
00-02	동북아시아포럼 2000	세계경제연구원
00-03	제6차 한미 21세기 위원회 보고서	세계경제연구원
01-01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세계경제연구원
01-02	Rebuild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PG 서울보고서)	Emerging Markets Eminent Persons Group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Ⅰ) - 새로운 세계질서: 기회와 도전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Ⅱ) -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의 앞날	세계경제연구원
03-01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응(Ⅲ) - 한국경제의 진로	세계경제연구원
03-02	세계경제연구원 개원 10주년 국제회의	세계경제연구원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창업활성화, 어떻게 하나	세계경제연구원
08-01	세계화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	세계경제연구원
09-01	최근 세계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계경제연구원
10-01	G20 개혁과제: 향후 금융감독 및 규제방향	세계경제연구원
10-02	G20 서울정상회의와 개발의제	세계경제연구원
12-01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체제: 아시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세계경제연구원
12-02	문화와 한국경제, 그리고 한류	세계경제연구원
12-03	새로운 글로벌 금융시대, 아시아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13-01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세계경제연구원
13-02	통일과 한국경제	세계경제연구원
13-03	세계 속의 한국 경제 길잡이	세계경제연구원
14-01	리더십과 정책의 우선순위	세계경제연구원
15-01	여성과 성장잠재력	세계경제연구원
17-01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미래	세계경제연구원

IGE Brief+

2012

연 번	제 목	저 자
12-01	문화산업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한국경제	남종현
12-02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형성과 그 추진방향	이종윤
12-03	유럽 경제위기와 한국의 과제	현정택
12-0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사공 일
12-05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금융 옴부즈맨 제도	이재웅
12-06	통일 준비 해둬야	사공 일

2013

연 번	제 목	저 자
13-01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사공 일
13-02	금융개혁과 중국의 정치경제	조윤제

2014

연 번	제 목	저 자
14-01	경찰관이 폭행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사공 일
14-02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사공 일
14-03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개조	사공 일
14-04	중국의 재부상과 한국: 도전과 기회	사공 일

2016

연 번	제 목	저 자
16-01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사공 일

세계경제지평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유목적 세계의 도전	Jacques Attali
94-02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混在	이영선
94-03	기회와 위협으로서의 中國	김원순
94-04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5	화폐의 종말/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홍기택/주한광

연 번	제 목	저 자
94-06	UR 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7	환경과 무역	나성린/김승진
94-08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 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운
94-09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선택	사공 일
94-10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도전과 기회	사공 일
95-02	기업의 세계화와 경쟁 규범	김원순
95-03	무엇이 세계화인가	김병주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cy
95-05	세계경제는 좌초할 것인가	김적교
95-06	엔화강세 지속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박진근
95-07	세계화와 한국경제: 호황인가 거품인가	구본호
95-08	확산되는特惠무역협정과 정책과제	남종현
95-09	역사인식과 한일 관계	홍원탁
95-10	일본산업의 네트워크 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운
95-11	국제경쟁력의 갈등	이재웅
95-12	해방 후 우리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	김광석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의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중소기업시대 열릴 것인가	류동길
96-03	단체교섭제도有感	배무기
96-04	세계화와 기업의 변신	지 청
96-05	우리나라 금융시장개방의 추진방향	박영철
96-06	다변주의의對 지역주의, 兩立은 가능한가?	김세원
96-07	派生金融商品의 위험과 효용	민상기
96-08	최근 경제위기감의 실체와 대응방향	김광석
96-09	경제발전, 제도개혁, 경쟁질서의 확립	이성섭
96-10	轉機를 맞이한 정부의 기능	김병주
96-11	WTO의 새로운 협상의제	김원순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노동법개정 難局의 해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前提한 複數勞組하용	김수곤
97-02	감속성장, 왜 바람직한가	김적교
97-03	韓寶사태의 敎訓	이재용
97-04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영	남덕우
97-05	기업성장의 虛實: 韓寶事態에서 얻는 敎訓	지 청
97-06	북한의 식량난과 집단농장체제	문팔용
97-07	한국의 금융개혁	윤계섭
97-08	高齡化社會의 도래와 財政危機	박종기
97-09	外換危機의 일반모형을 감안한 우리의 대응 방향	박진근
97-10	벤처기업시대를 열어가려면	유동길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한국의 經濟奇蹟은 끝난 것인가?	남중현
98-02	패러다임의 대전환 없이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	송대희
98-03	기업구조조정과 바람직한 은행-기업관계	남상우
98-04	새로운 기업지배구조의 모색과 사외이사의 역할	이영기
98-05	고투자-고저축 고리의 단절을 위한 제언	이영탁

1999

연 번	제 목	저 자
99-01	연금개혁의 전망과 과제	박종기
99-02	지하철파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수곤
99-03	금융구조조정과 중소기업금융	박준경
99-04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과제	김종기
99-05	소득분배 문제의 실상과 대응방향	김광석
99-06	“생산적 복지” 정책의 허와 실	최 광
99-07	세계화시대의 韓中日 經濟協力 強化 方案	사공 일
99-08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결렬과 향후전망	박태호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2000년 경제전망 및 향후 과제	김준경
00-02	세계금융체제에 관한 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사공 일

연 번	제 목	저 자
00-03	아시아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사공 일
00-04	高비용 低능률구조의 부활	이종윤
00-05	아시아 경제회복, 지속될 것인가?	사공 일
00-06	국제경제환경과 한국경제	조운제
00-07	기업경영 감시를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이재용
00-08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이영세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한국산업의 경쟁력 위기와 향후 진로	김도훈
01-02	주 5일 근무제 도입 신중해야	박영범

연구보고서 (세계경제 시리즈)

1994

연 번	제 목	저 자
94-01	UR이후 아태 경제협력의 과제와 한국의 선택	유재원
94-02	환경-무역관계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김승진/나성린
94-03	円高에 따른 일본의 산업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대응	이종윤
94-04	개방화에 따른 기업정책의 방향	김종석

1995

연 번	제 목	저 자
95-01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주한광/김승진
95-02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기업: 한·일 기업의 수용 가능성 비교	이재규
95-03	WTO 체제와 우리의 대응	김지홍

1996

연 번	제 목	저 자
96-01	국내 선물시장에 대한 구상과 전망	이 선
96-02	일본 산업의 네트워크구조와 그 효율성	이종윤

1997

연 번	제 목	저 자
97-01	루마니아의 경제현황과 주요개혁과제	김광석/김병주/ 고일동

1998

연 번	제 목	저 자
98-01	우리 경제의 成長要因과 成長潛在力 展望	김광석
98-02	한국과 ASEAN 諸國 間 무역구조의 변화 추이와 대응 방향	김승진
98-03	국제무역체제의 도전과제	김원순/최낙균
98-04	정보화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박종국

2000

연 번	제 목	저 자
00-01	한국의 금융 위기와 산업 정책	이영세/정용승

2001

연 번	제 목	저 자
01-01	우리나라의 산업·무역 정책 전개 과정	김광석
01-02	한국에서의 기술이전과 정보의 역할	이영세

전문가 진단

2004

연 번	제 목	저 자
04-01	한국 FTA정책의 虛와 實	남종현
04-02	외국 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2005

연 번	제 목	저 자
05-01	세계 속의 한국경제: 과제와 전망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특별강연

1993

연 번	제 목	연 사
93-01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한미 경제관계	C. Fred Bergsten
93-02	UR 및 NAFTA의 장래와 한국의 대응	Jeffrey Schott
93-03	국제환경 변화와 세계경제 장·단기 전망	Allen Sinai
93-04	태평양지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	Lawrence Krauss
93-05	21세기 세계구도 변화와 한국	Jacques Attali

1994

연 번	제 목	연 사
94-01	21세기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Paul Kennedy
94-02	미국과 일본 간의 기술경쟁과 한국에 미칠 영향	Ronald A. Morse
94-03	일본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Toyoo Gyohten
94-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Allen Sinai
94-05	동구권 경제전망과 한국의 진출방안	Ronald Freeman
94-06	국제환율제도 이대로 좋은가?	John Williamson
94-07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와 한국의 대응	Arthur Dunkel
94-08	新경제의 금융개혁: 평가와 전망	박재윤

1995

연 번	제 목	연 사
95-01	세계화 전략과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	홍재형
95-02	멕시코 폐소화 위기와 세계 금융시장 동향	Charles Dallara
95-03	세계경제 동향과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95-04	한국과 미국: 2000년의 세계경제	James Laney
95-05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전략	Lester Thurow
95-06	미국-북한 관계 전망	Robert Scalapino
95-07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James A. Baker III
95-08	미일 무역마찰과 한국	Anne O. Krueger
95-09	국제금융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Stanley Fischer
95-10	세계무역기구 - 새로운 도전	Jagdish Bhagwati
95-11	동북아 경제권 개발 전망	Kanamori Hisao
95-12	러시아 정보제도의 현황과 변화 전망	Vadim Kirpitchenko
95-13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96년도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95-14	최근 미국 정치동향과 한미 관계	Thomas Foley

연 번	제 목	연 사
95-15	APEC과 세계무역체제	C. Fred Bergsten
95-16	국제금융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Toyoo Gyohten
95-17	WTO와 세계무역체제	Anne O. Krueger

1996

연 번	제 목	연 사
96-01	세계경제의 도전과 한국	Robert Lawrence
96-02	新경제의 통상정책	박재운
96-03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기술협약과 한국	Sylvia Ostry
96-04	정보화 시대: 한국의 대응	이석채
96-05	EU의 앞날과 세계경제	Jørgen Ørstrøm Møller
96-06	세계경제와 OECD의 역할	Donald Johnston
96-07	다자간 무역체제 하의 새로운 과제	김철수
96-08	금융세계화와 세계경제	Paul A. Volcker
96-09	세계경제와 동아시아경제: 협력인가, 갈등인가?	Martin Wolf
96-10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Wendy Dobson
96-11	위기에 처한 일본의 은행부문: 원인과 시사점	Hugh Patrick
96-12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	Francis Fukuyama
96-13	클린턴 행정부의 업적과 재선 전망 및 한국에 미칠 영향	Robert Warne
96-14	세계무역 - 21세기 비전	C. Fred Bergsten
96-15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새 역할	A. W. Clausen
96-16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Richard Feinberg

1997

연 번	제 목	연 사
97-01	세계화 시대의 경제운용	남덕우
97-02	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독의 교훈	Juergen B. Dinges
97-03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정책	William Perry
97-04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 투자협정	Edward Graham
97-05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	Donald Hunn
97-06	한미 관계: 변화 속의 안정	W. Anthony Lake
97-07	한국: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중심으로	Donald P. Gregg
97-08	일본의 경제침체와 동아시아 통화위기	Ronald McKinnon

1998

연 번	제 목	연 사
98-01	세계화와 국가의 주체성	Guy Sorman
98-02	아시아 통화위기와 일본의 역할	Takatoshi Kato
98-03	한국의 통화·금융위기: 미국의 시각	Charles Dallara
98-04	유럽 단일통화(Euro)와 세계금융 질서	Tue Rohsted
98-05	아시아 통화위기: 원인과 전망	Anne O. Krueger
98-06	국가경영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진 념
98-07	99년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전망	Hubert Neiss
98-08	최근 북한 경제상황과 향후 전망	Marcus Noland

1999

연 번	제 목	연 사
99-01	세계 속의 한국경제와 OECD	Donald Johnston
99-02	미국의 경제현황과 주식시장 전망	Richard A. Grasso
99-03	국제금융시장과 달러/엔 환율 전망	Kenneth S. Courtis
99-04	미국과 일본 경제의 비교평가	Hugh Patrick
99-05	세계경제: 도전과 전망	Rudiger Dornbusch
99-06	한국의 금융세계화, 어떻게 해야 하나?	James P. Rooney
99-07	국제금융시장 전망: 미국경제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Robert Hormats
99-08	한미관계: 번영과 안보의 동반자	Stephen W. Bosworth

2000

연 번	제 목	연 사
00-01	2000년도 아시아 및 신흥시장 전망	Charles Dallara
00-02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양수길
00-03	성장하는 아시아와 침체 속의 일본	Kenneth S. Courtis
00-04	세계금융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Morris Goldstein
00-05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향후 정책방향	이용근
00-06	시애틀 이후 WTO와 한미FTA 전망	Jeffrey Schott
00-07	세계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정책대응	Anne O. Krueger
00-08	남북한 관계: 현황과 전망	Marcus Noland
00-09	지식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00-10	미국 新행정부 및 의회의 경제·대외 정책방향	C. Fred Bergsten

2001

연 번	제 목	연 사
01-01	2001년 미국, 일본 경제와 아시아	Kenneth S. Courtis
01-02	부시행정부의 對韓정책과 한국의 대응	Marcus Noland
01-03	내가 본 한국기업과 한국경제: 3C를 극복하자	Jeffrey D. Jones
01-04	하이테크와 비즈니스, 그리고 세계경제	John Naisbitt
01-05	한국과 IMF	Stanley Fischer
01-06	한국경제의 향후 10년	Dominic Barton
01-07	세계 달러본위제도와 동아시아 환율딜레마	Ronald McKinnon
01-08	新국제질서 속의 유럽과 한국	Pierre Jacquet
01-09	세계경제의 기회와 위협: 긴급진단	Martin Wolf
01-10	금융위기 再發, 어떻게 막나: 칠레의 경험을 중심으로	Carlos Massad
01-11	21세기 미일 경제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Marcus Noland

2002

연 번	제 목	연 사
02-01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Patricia Hewitt
02-02	9·11 테러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문명의 충돌인가?	Francis Fukuyama
02-03	아시아 지역의 통화·금융 협력	Barry Eichengreen
02-04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회복가능성과 위험	Allen Sinai
02-05	세계경제, 회복되고 있나?	Kenneth S. Courtis
02-06	미국경제와 달러의 장래	Marcus Noland
02-07	도하라운드: 문제점과 전망	Jagdish Bhagwati
02-08	2003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Paul F. Gruenwald
02-09	미국경제, 달러 및 대외통상 정책 방향	C. Fred Bergsten
02-10	9·11 사태 1주년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Thomas C. Hubbard
02-11	미국경제 현황과 세계경제의 앞날	John B. Taylor
02-12	미국의 IT산업 관련정책과 한국	Peter F. Cowhey

2003

연 번	제 목	연 사
03-01	이라크전 이후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Allen Sinai
03-02	2003 세계경제와 한국: OECD의 시각	Donald Johnston
03-03	亞太지역에서의 미국의 새 역할	Charles Morrison
03-04	세계경제 전망과 부시행정부의 경기부양책	Phil Gramm
03-05	세계환율체제 개편과 동아시아 경제	John Williamson
03-06	침체된 독일·유럽경제가 주는 교훈과 정책적 시사	Hans Tietmeyer

연 번	제 목	연 사
03-07	동아시아 금융협력과 한국	Eisuke Sakakibara

2004

연 번	제 목	연 사
04-01	2004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Allen Sinai
04-02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Marcus Noland
04-03	외국기업인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	William C. Oberlin
04-04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日 관계 - 미국 대통령선거와 韓美, 韓日 관계 - 미국 경제와 일본경제, 그리고 한국경제	- Gerald Curtis - Hugh Patrick
04-05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04-06	아시아 화폐 단일화, 가능한가?	Robert Mundell
04-07	대통령선거 이후의 미국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	Peter F. Cowhey
04-08	아시아 세계무역환경, 어떻게 전개되나?	Dominic Barton

2005

연 번	제 목	연 사
05-01	제2기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계경제 및 시장 전망	Allen Sinai
05-02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경제의 활로	Yukiko Fukagawa
05-03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보는 한국	Thomas Byrne
05-04	급부상하는 중국과 인도 경제	Wendy Dobson
05-05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통합	Robert Scollay
05-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역할과 전망	Anne O. Krueger
05-07	세계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Barry Eichengreen
05-08	미국의 힘은 얼마나 강한가?	Paul Kennedy
05-09	중국의 부상, 어떻게 보아야 하나	Bernard Gordon
05-10	고유가와 세계경제의 앞날	Philip K. Verleger

2006

연 번	제 목	연 사
06-01	2006년 미국경제/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6-02	한미FTA: 지속성장의 활로	Alexander Vershbow
06-03	일본 경제회생과 한국경제	Yukiko Fukagawa
06-04	세계 IT 리더십 경쟁: 승자와 패자	George Scalise
06-05	세계인이 보는 한국경제는?	Charles Dallara
06-06	일본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일 FTA	Oshima Shotaro

연 번	제 목	연 사
06-07	20년 후의 중국, 어떻게 될까?	Richard N. Cooper
06-08	세계 M&A 시장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	Robert F. Bruner
06-09	한미 관계: 새로운 동반자 시대를 지향하며	Edwin J. Feulner
06-10	아시아 공동통화와 아시아 경제통합	Eisuke Sakakibara
06-11	통일 이후 독일: 경제침체의 교훈	Juergen B. Donges
06-12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ngel Gurría
06-13	동아시아 FTA, 가능한가?: 중국의 시각	Zhang Yunling
06-14	구조적 변화 맞고 있는 세계석유시장과 한국	Fereidun Fesharaki
06-15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 Krueger

2007

연 번	제 목	연 사
07-01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07-02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전망과 과제	Yukiko Fukagawa
07-03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글로벌 기업전략	Ben Verwaayen
07-04	동아시아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David Hale
07-05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Stephen J. Yates
07-06	세계 속의 한국경제, 위상강화 어떻게 하나?	Charles Dallara
07-07	한미FTA: 미국의 시각	Jeffrey Schott
07-08	한미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07-09	왜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Guy Sorman
07-10	인도경제 전망과 한국기업	Tarun Das
07-11	세계화시대의 기업 인재 확보	Ben Verwaayen
07-12	2008년 한국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전망	Jerald Schiff
07-13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 Krueger

2008

연 번	제 목	연 사
08-01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08-02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s): 인식과 현실	Robert C. Pozen
08-03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08-04	차기 미국대통령이 풀어야 할 세계적 도전	James A. Baker III
08-05	일본 자본시장의 현재와 전망	Atsushi Saito
08-06	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어떻게 전개되나?	Phil Gramm
08-07	세계 및 아시아 경제·금융, 어떻게 되나?	Charles Dallara

연 번	제 목	연 사
08-08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어떻게 하나?	Guy Sorman
08-09	긴장 속의 세계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Jeffrey Shafer
08-10	세계금융위기, 달러, 그리고 유가	Martin Feldstein
08-11	09년 한국경제와 세계 및 아시아경제 전망	Subir Lall

2009

연 번	제 목	연 사
09-01	혼란과 전환기의 경쟁력 강화: 과제와 전망	Deborah Wince-Smith
09-02	위기 속의 미국 및 세계경제와 금융: 전망과 정책대응	Allen Sinai
09-03	세계금융위기가 개도국에 미치는 여파와 우리의 대응	Danny Leipziger
09-04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Jeffrey Schott
09-0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09-06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우리의 교훈	Anne O. Krueger
09-07	하강하는 세계경제와 케인지언 정책처방의 실효성	Justin Yifu Lin
09-08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한미 협력관계: 과제와 전망	Jeffrey Schott
09-09	경제위기 이후 세계의 투자 전망: IFC와 개도국의 역할	Lars H. Thunell
09-10	과연 더블딕 경제침체는 올 것인가?	손성원
09-11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EU: 한국의 기회는?	Jean-Pierre Lehmann

2010

연 번	제 목	연 사
10-01	위기 이후의 미국 및 세계경제 전망, 그리고 유산과 정책과제	Allen Sinai
10-02	세계화 파고 속의 한국과 일본경제: 도전과 전망	Yukiko Fukagawa
10-03	신흥국 자본시장과 뉴 프론티어	Mark Mobius
10-04	중국 경제의 虛와 實: 과제와 전망	Danny Leipziger
10-05	세계경제와 아시아의 역할	Dominique Strauss-Kahn
10-06	세계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진단과 전망	Anne O. Krueger
10-07	더블딕과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손성원
10-08	세계경제의 재균형	Paul A. Volcker

2011

연 번	제 목	연 사
11-01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2011년 및 2012년 전망	Allen Sinai
11-02	아시아 경제의 발전전망과 도전과제	Haruhiko Kuroda

연 번	제 목	연 사
11-03	유럽국가의 채무위기: 평가와 전망	Richard N. Cooper
11-04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한국의 선택은?	장순홍
11-05	기रो에 선 세계화와 다자주의, 그리고 G20	Danny Leipziger
11-06	북한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Marcus Noland
11-07	중국경제 재균형에 관한 특강	Yu Yongding
11-08	격동 속의 세계경제: 전망과 투자전략	손성원

2012

연 번	제 목	연 사
12-01	혼돈 속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어떻게 되나?	Allen Sinai
12-02	12년 미국의 대선과 향후 아태 정책 전망	Charles Morrison
12-03	과학기술 연구대학의 발전과 교육, 경제성장	서남표
12-04	유로 위기: 해결책은 없나?	Hans Martens
12-05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Charles Dallara
12-06	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	Guy Sorman
12-07	FTA와 아태지역통합, 그리고 한국	Peter A. Petri
12-08	유로 위기: 언제 끝나나?	Nicolas Véron
12-09	중국의 새 리더십과 경제정책	Andrew Sheng
12-10	국제통상질서의 현황과 WTO의 미래	Jean-Pierre Lehmann

2013

연 번	제 목	연 사
13-01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Allen Sinai
13-02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Guntram B. Wolff
13-03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	Andreas Dombret
13-04	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John Lipsky
13-05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David Hale
13-06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Hugh Patrick, Gerald Curtis
13-07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Guy Sorman
13-08	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Yukiko Fukagawa, Jeffrey Schott
13-09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l-Heinz Paqué
13-10	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Bob Davis

연 번	제 목	연 사
13-11	일본 아베정권의 정치 · 경제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David Asher
13-12	한중일 정치 · 경제 관계 어디로 가고 있나?	David Philling

2014

연 번	제 목	연 사
14-01	2014년 세계경제, 나아질 것인가	Allen Sinai
14-02	스위스 메이드	R. James Breiding
14-03	아베정권은 어디로 가고 있나	Gerald Curtis
14-04	중견기업: 순항하는 독일 경제의 비결	Peter Friedrich
14-05	유럽경제, 살아날 것인가?	Karl-Heinz Paqué
14-06	2014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Martin Feldstein
14-07	복지향상과 기부문화	Guy Sorman
14-08	세계무역 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미래	Roberto Azevêdo
14-09	브릭스(BRICs)에서 미국으로	Sung Won Sohn
14-10	세계경제 회복, 위기인가 기회인가	Charles Dallara
14-11	아베의 노동개혁과 혁신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Yukiko Fukagawa
14-12	중국경제 현황과 시진핑의 반부패운동	Bob Davis
14-13	다가올 미 연준의 QE 종료는 아시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Anoop Singh
14-14	중국의 신경제전략과 한중 FTA	Zhang Yunling

2015

연 번	제 목	연 사
15-01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	Jeroen Dijsselbloem
15-02	2015년 세계경제, 정상화될 것인가	Allen Sinai
15-03	중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며	Lawrence Lau
15-04	공동 번영을 위한 한미 경제 파트너십	Mark W. Lippert
15-05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Peter Hartz
15-06	유럽의 저성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Guy Sorman
15-07	글로벌 에너지 · 환경 이슈와 스위스의 경험	Doris Leuthard
15-08	혼돈의 아시아 경제, 어디로 가는가	David L. Asher
15-09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는 무엇인가	Huang Yiping
15-10	디지털화를 활용한 독일의 산업혁명 4.0	Matthias Machnig
15-11	세상을 바꾸는 네 가지 글로벌 흐름	Dominic Barton
15-12	격변하는 신흥시장과 한국에 미칠 영향	Sung-won Sohn

연 번	제 목	연 사
15-13	내가 본 한국, 한국 경제, 그리고 북한 경제의 잠재력	Thomas Byrne
15-14	중국의 경제개혁과 향후 전망	Huang Haizhou
15-15	동아태지역 국가의 인구 노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전망	Sudhir Shetty Philip O'Keefe

2016

연 번	제 목	연 사
16-01	2016년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Allen Sinai
16-02	2016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와 리스크	Hung Tran
16-03	미국의 경제·정치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Anne Krueger
16-04	미국 경제와 대선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Martin Feldstein
16-05	미국 대통령 선거가 동북아에 미칠 지정학적 영향과 전망	Gerald Curtis
16-06	한미 경제 협력: 현황과 전망	Mark Lippert
16-07	제4차 산업혁명, 우리의 준비는	Doh-Yeon Kim
16-08	통화정책 실험과 정치 분열기의 세계 경제	Charles Dallara
16-09	미국 새 행정부의 경제와 안보 정책	Marcus Noland & Sung-won Sohn

2017

연 번	제 목	연 사
17-01	대변혁 속의 2017 - 미국과 세계 경제 금융 전망	Allen Sinai
17-02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2017년 미국 및 세계 경제 전망	Martin Feldstein
17-03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동화, 일자리, 그리고 직업의 미래	Jonathan Woetzel
17-04	트럼프의 미국, 일본 경제 그리고 한국	Gerald Curtis & Hugh Patrick
17-05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유럽의 도전	Thomas Wieser
17-06	세계경제 성장 전망과 기술의 역할	Simon Baptist
17-07	직업의 미래 - 이번엔 다른가	Carl Benedikt Frey
17-08	미국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FTA 개정	Sung-won Sohn & Jeffrey Schott

2018

연 번	제 목	연 사
18-01	2018년 미국과 세계 경제·금융 전망	Allen Sinai
18-02	미국 보호주의와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합의 일본 노동개혁과 한일 협력의 미래	Ken Courtis & Yukiko Fukagawa

연 번	제 목	연 사
18-03	펠드스타인 교수가 진단하는 미국과 세계경제	Martin Feldstein
18-04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경제 정책	Charles Freeman
18-05	유럽이 보는 시진핑 체제하의 중국과 세계 질서	Guy Sorman
18-06	새로운 아시아 경제 지평: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	Eisuke Sakakibara
18-07	독일의 기후변화, 에너지 및 녹색기술 정책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Karsten Sach